

06

June 2025
vol. 287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Watches &
Wonders 2025



SANTOS
DE
Cartier



ETERNAL N°5 NECKLACE IN WHITE GOLD AND DIAMONDS.



COLLECTION N°5

CHANEL

FINE JEWELRY

Crafting emotions for 250 years

One invention at a time

아브라함-루이 브레게의 혁신적인 발명은
워치메이킹의 예술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가 추구한 완벽함은 오늘날에도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줍니다.
이 유산을 기념하여 브레게만의 새로운 브레게 골드로 제작된
클래식 서브스크립션 2025 <Classique Souscription 2025>를
선보입니다.

BREGUET

250 YEARS



Contents

- 08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0_SELECTION 별다른 조명 없이도 빛나는, 시퀀, 크리스털 등의 디테일과 네온 컬러 믹스로 완성한 자체 발광 글리터 패션.
- 12_우리네 삶의 얼굴을 응시하는 '생각'의 렌즈 지난봄 일본의 천 년 고도 교토에서 열린 사진 축제 교토그라피(KYOTOGRAPHIE). '삶의 얼굴을 응시하고', '온 힘을 다해 집중하는' 예술가들의 시선을 느끼고, 직접 만나기도 하면서, 교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전시 공간을 다니느라 바쁜 걸음 속에서도 '존재'에 대한 단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현장이었다.
- 14_MAGIC OF METAMORPHOSIS 올해 까르띠에는 다시 한번 마법 같은 워치메이킹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 18_ETERNAL ATTRACTION 사별을 상징하는 요소들의 정점에 존재하는 숫자 5 모티브를 이타널 N5 주얼리 컬렉션으로 만나보자.
- 20_BOLD MOVE 메달 하나만으로 존재감을 발휘하는 펜던트 네크리스.
- 21_HERITAGE OF INNOVATION 워치스 & 원더스 2025 부스에서 바쉐론 콘스탄틴의 프로덕트 마케팅 & 이노베이션 디렉터, 산드린 동기(Sandrine Donguy)를 만났다.
- 22_WATCHES & WONDERS 2025 변화의 흐름과 긴장감 속에서 변화없이 찬란한 시간을 기록해나가는 워치스 & 원더스 현장을 스타일 조선일보가 직접 찾았다.



1904년 루이 까르띠에는 비행사 알베르트 산토스-뒤몽을 위해 산토스 워치를 탄생시켰다. 이후 기하학적 다이얼, 곡선형 혼, 시선을 사로잡는 스크루로 메종의 아이코닉으로 거듭났다. 옐로 골드 베젤, 실버 마감 오프런 다이얼과 검 모양 블루 스틸 핸즈 등 현재도 아이코닉하고 타임리스한 스타일을 완성한다. 문의 1877-4326



- 40_THE SWINGING 흔들리지 않아도 좋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프린지 아이템의 존재감.
- 41_EVERLASTING SHINE 지난 4월 누도 컬렉션의 새로운 라인의 공개를 알리는 것을 기념해 한국을 찾은 포멀라토 CMO 보리스 바르보니를 만나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 42_GET THE LIST 서머 룩에 품격을 더하는 특별한 선택.
- 44_SHALL WE CHERRY? 루이 비통과 무라카미 다카시가 다시 만나 그려낸 리에디션, 그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챔터를 지금 확인해보자.
- 46_MAKE A CHOICE 데일리 룩에 남성미를 더해줄 남성 향수 리스트 7.
- 47_TIME OF DREAMS 런던, 상하이, 뉴욕 등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 <크리스찬 디올: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 전시회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다.
- 48_THE EVOLUTION OF GREAT HERITAGE 대한민국 최초의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유서 깊은 건축물을 복원하고, 글로벌 브랜드와 한국적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 50_BLOOMING DAYS 아늑한 집 안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크고 작은 플라워 라빙 아이템.
- 51_WONDERFUL WELLNESS 아름다운 해변을 간직한 베트남 나트랑에 위치한 빌라르 코라이에서 경험하는 웰니스 프로그램.
- 52_단단한 뿌리 위에 세운 도심의 풍요로운 안식처 아만의 역사가 시작된 태국에 문을 연 아만 나이리트 방콕에 다녀왔다.
- 54_EDITOR'S PICK 따스한 색조와 자연의 향이 가득한 6월 신상 뷰티 리스트.



Chopard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INSIGHT

Let's Go on a Vacation!

스타일리시한 바캉스 룩을 완성해줄 서머 액세서리.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세로가 짧고 둥근 사각 프레임으로 시원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다올 파시피크 액렙글러 선글라스 가격 미정 **다올**, 문의 02-3280-0104. 탈착 가능한 스트랩과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편의성을 자랑하는 라피아 크로세 쇼퍼 백 3백30만원대 **돌체앤가바나**, 문의 02-3442-6888. 다양한 방식으로 착용해 포인트로 연출 가능한 플라워 패턴의 실크 스카프 가격 미정 **구찌**, 문의 02-3452-1921. 여름과 잘 어울리는 비비드한 레드 컬러 스트로베리 세이프에 베르사체 메두사 로고 모양의 열기 씨 디테일이 돋보이는 라 메두사 키 체인 77만원대 **베르사체**, 문의 02-3479-1294. 포토그래퍼 **윤지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Magical Number

사넬의 상징적인 N°5를 매혹적인 주얼리로 탄생시킨 컬렉션으로 부드러운 곡선 실루엣의 매력적인 숫자 5를 고스란히 담아낸 세이프와 다이아몬드 드롭 장식, 클로즈드 세팅(closed setting) 방식으로 숫자 5의 중앙에 자리한 다이아몬드 등 사넬 주얼리만의 우아한 미학을 여실히 보여준다. 브레이슬릿과 링, 상글 이어링 등 기존 디자인의 옐로 골드 버전은 물론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타널 N°5 링, 초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네크리스 등 다양한 카테고리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805-9628



New Shape of Quatre

부쉐론의 아이코닉한 컬렉션인 콰트로를 네크리스로 만나볼 시간이다. 여러 개의 밴드가 하나의 펜던트로 연결된 '콰트로 클래식 볼로 타이(Quatre Classique Bolo Tie)' 네크리스는 체인을 따라 펜던트를 위아래로 이동하거나 길이 조절 가능하며 다이아몬드와 옐로 골드, 핑크 골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더없이 찬란한 빛을 발한다. 메종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클레어 슈아슨(Claire Choison) 특유의 대담하고 독창적인 감각에 반짝이는 골드 튜브 디테일을 더해 건축적 미학이 돋보인다. 문의 02-772-3508

Watches of the Month • 이달 주목해야 할 워치 셀렉션



Maison Unveiled 올해 바쉐론 콘스탄틴은 주요한 퀘스트를 앞두고 있다. 바로 플래그십 스토어 '메종 1755 서울'이 오픈하는 것. 이를 기념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오버사이즈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오픈페이스를 선보인다. 올트라-신 매뉴팩처 칼리버 2755에 퍼페추얼 캘린더와 투르비옹 레귤레이터를 장착한 것이 특징. 문의 1877-4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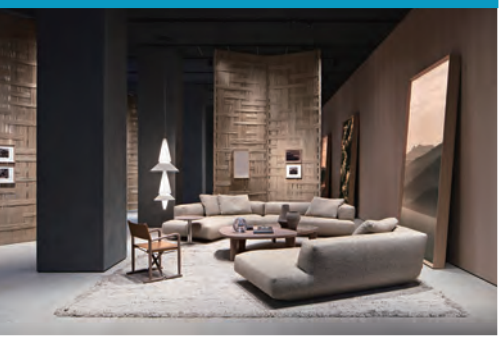
Blue Lover 소파드 '알파인 이글 스몰' 워치는 브랜드 고유의 일레치 블루 다이얼에 스틸 브레이슬릿을 더하고 100m 방수 기능을 적용해 여름 워치로 제격이다. 클래식한 로마숫자 인덱스, 눈부심 방지에 탁월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42시간 파워 리저브를 갖춘 셀프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 등을 장착했다. 문의 02-6905-3390



Luxe Pink 빈티지 핑크 골드, 아틀리에 인텍스, 밀라네즈 링크, 매끈한 세이프, 예거 르쿨트르의 '라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 이야기다. 1990년대 리베르소 모델이 처음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대담하게 진화하는 중이며, 그중 이번에 출시한 트리뷰트는 그 당시의 순수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가장 많이 닮았다. 문의 02-3449-5912



Purple Royal 올해 탄생 290주년을 맞이한 블랑팡. 이를 기념해 레이디버드 컬리지에 고귀한 로열 퍼플 컬러를 입힌 특별한 에디션を 선보인다. 전통적으로 품위와 독립성을 상징하는 퍼플 컬러로 유서 깊은 여성 워치메이킹 헤리티지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며 블랑팡만의 나크르 펠레(nacre perlée) 자개 다이얼을 매치해 우아한 반짝임을 부여했다. 문의 02-3479-1833



Flexform in Town!

국내 라이프스타일 시장에서 견고한 위치를 점해온 인피니(Infini)가 이탈리아 하이엔드 가구 브랜드 플렉스폼(Flexform)으로 리빙 애호가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최근 서울 청담동에 자리한 인피니 플래그십 매장에서는 지난봄 밀라노 디자인 주간에 공개된 신제품 라인을 비롯해 '메이드 인 이탈리아' 원칙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브랜드 플렉스폼의 주요 컬렉션을 선보이며 공식 론칭을 알렸다. 1959년 이탈리아 북부 브리안차(Brianza) 지역에서 갈림베르티(Galimberti) 가문이 창립한 플렉스폼은 '기능성'과 '편안함'이라는 가구의 근본적인 가치를 굳게 지키면서도 안토니오 치테리오(Antonio Citterio) 같은 동시대 최고 크리에이티브를 간편으로 내세운 우아하고 절제된 디자인 미학으로 유명한 브랜드다. 밀라노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 산업 디자이너인 안토니오 치테리오의 유수 디자인 브랜드들과의 협업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법'을 호텔업계에 기풍 있게 반영한 불가리 호텔의 전 세계 지점을 비롯해 만다린 오리엔탈 밀라노 등 유수 호텔의 설계와 인터리어 디자인을 맡아온 거장이다. 플렉스폼의 경우에는 치테리오가 브랜드 전반에 걸친 정착성을 다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일례로 그가 2001년 내놓은 '그라운드피스 소파(Groundpiece Sofa)'는 팔걸이를 선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 특유의 안락함으로 꾸준히 인기를 누려온 베스트셀러다. 문의 02-3447-6000

Hermès, the endless line





에디터 신정임 스타일리스트 임희영

별다른 조명 없이도 빛나는, 시퀀, 크리스털 등의 디테일과 네온 컬러 믹스로 완성한
자체 발광 글리터 패션.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KYOTO GRAPHIE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

교토그래피(KYOTOGRAPHIE) 2025_2편

우리네 삶의 얼굴을 응시하는 ‘생각’의 렌즈

‘우리 모두가 예술가’라든지 ‘일상의 예술’ 같은 주제를 꼬집어낼 때 사진은 참으로 유용한 매체다. 자그마한 휴대폰 하나로 어디서든 ‘찰나’를 나만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사진의 예술성’이라는 해묵은 이슈는 차치하고,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클릭이 ‘용량 초과의 삶’을 초래하는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는 호모 포토쿠스의 일상을 보노라면 정말로 온전히 집중하고 누려야 할 중요한 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곤 한다. 물론 무수한 사진작가들도 지난한 작업 여정을 거친 깊은 고민 속에 그저 몇 컷만 건져 올린 결과물을 우리 앞에 내놓을 테지만, 그 선별된 ‘순간의 예술’로 인해 오롯이 대상과 주제에 온 마음과 생각을 할애하는 ‘응시의 미학’을 차분히 들여다보게 된다. 지난봄 일본의 천 년 고도 교토에서 한 달 동안 열린 사진 축제 교토그래피(KYOTOGRAPHIE)는 바로 그런 현장이었다. 사진에 대한 많은 글을 남겼던 존 버거가 애용했던 D. H. 로런스의 ‘생각’에 대한 문장처럼, ‘삶의 얼굴을 응시하고’, ‘온 힘을 다해 집중하는’ 예술가들의 생각 어린 시선을 느끼고, 직접 만나 배경 스토리까지 접하기도 하면서, 교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전시 공간을 다니느라 바쁜 걸음 속에서도 ‘존재’에 대한 단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현장이었다.

생각은 삶의 얼굴을 응시하고,
키기 보이는 것을 읽는 일.
생각은 경험에 대해 숙고하고, 결론에 이르는 일.
생각은 속임수나 연습, 이어지는 회피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집중하는 한 인간.
D. H. 로런스

2013년 시작된 이래 매년 꾸준히 인지도를 키워 가며 올해 13회 행사를 치른 국제적인 사진 축제 교토그래피(KYOTOGRAPHIE)의 첫인상은 ‘벚꽃’이었다. 4월 초, 마침 교토의 벚꽃 주간이 한창이던 시점이어서라기보다 이번 여정의 개 인적 시작이 이 도시로 몰려든 다국적 여행객들로 인한 하늘길의 교통 체증 때문에 예정보다 늦게 숙소로 가는 길에 만난 ‘밤 벚꽃’ 덕분

이었다. 마침 밤하늘 아래 살짝 비를 맞아 더 청신한 느낌이 드는 벚꽃의 자태는 낮의 화사한 분위기와는 또 달랐고, 교토의 운치 있는 팔색조 면모를 잘 드러내는 듯했다. 봄은 꽃, 어서 보러 오세요, 허가시아마, 색향을 다루는 밤 벚꽃...이라는 노랫말처럼, 심지어 숙소도 허가시아마에 자리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밤 벚꽃이 뇌리에 각인될 수밖에. 당연히 프랑스 작가 JR이 축제의 출발을 알린 교토역을 비롯해 미술관, 사찰, 시장 등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토그래피 전시에도 벚꽃이 함께했다. 특히 하양과 분홍이 상큼한 조화를 이루는 작은 벚꽃잎들이 실개천에 떠 가는 모습, 일본 사람들이 ‘꽃배라’ 표현하는 시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타임스(TIME’S) 건물의 전시는 때마침 햇살

“
‘humanity’를 올해 주제로 내세운 교토그래피를 수놓은 작가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스토리텔링이 더 오감을 잡아끌었다”

의 세레나데가 퍼져 더욱 운치 있었다. 하지만 갈수록 벚꽃보다는 ‘humanity’를 올해 주제로 내세운 교토그래피를 수놓은 작가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스토리텔링이 더 오감을 잡아끌었다. 위성 행사인 KG+까지 합하면 3백 명도 넘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가했지만, 이 글에서는 교토에서 만난 국적, 연령대, 개성이 다른 2명의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삶을 함축하는 ‘시각적 증거’들의 힘
교토그래피의 매력을 품으려면 전시 공간마다 공들인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콘텐츠와 잘 어우러지는 세련된 무대 미술(scenography)을 1순위에 올릴 것 같다. 그중 교토시미술관 별관에서 열린 80대 멕시코 작가 그라시엘라 이투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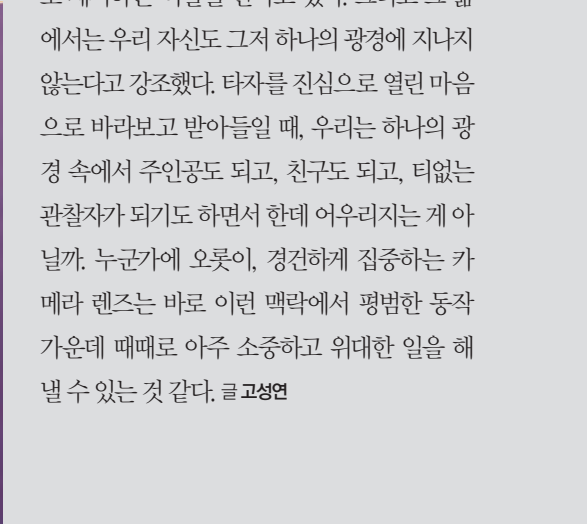


데(Graciela Iturbide)의 전시는 제일 처음 감탄사를 내뱉게 했다. 중남미 지역 사람들의 다채로운 삶을 카메라로 포착해온 거장의 회고전은 천과 나무 같은 자연 소재의 패널을 활용한 전시 공간 디자인이 우아하면서도 차분한 매력을 심분 발휘했는데, 건축가인 그녀의 아들 마우리시오 로사 이투르비데(Mauricio Rocha Iturbide)가 참여했고 종이 등을 다루는 일본 장인들도 협업에 동참했다. “내게 있어 컬러는 판타지다. 흑과 백의 렌즈로 현실을 바라본다”라는 말을 남긴 그녀의 반세기 넘는 창조적 여정을 볼 수 있는 회고전이다. 자신의 뿌리가 얹혀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세리(Seri), 자포텍(Zapotec) 같은 현지 부족들과 함께 체류하면서 담담하게 자신의 렌즈에 담은 흑백사진들은 특별한 과정이나 윤색 없이 흥미로운 인생의 단면을 보여준다. 강렬한 타투가 인상적인 사막에 사는 부족 여인들의 패셔너블한 모습, 제3의 성을 지닌 커뮤니티 일원들의 일상, 멕시코의 우상 같은 존재인 예술가 프리다 칼로의 흔적, 그리고 이구아나를 모자처럼 쓴 여인의 초상 등 분명 다른 세계지만 우리네 다양한 모습과 닮은 구석도 친근하게 느껴지는 ‘시간 여행’ 같은 전시 여정 속에서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 어쩌면 우리는 ‘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근거 없는 편견이나 그릇된 환상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새삼 일깨운다. 인류학자로서 열대우림의 부족 사회를 관찰하면서 미개한 영역으로 간주됐던 오지 원주민 사회와 민속 문화에 대해 새 지평을 열었던,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했던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책을 떠올리게도 하지만, 뭔가 굴절이 덜한 듯한 이투르비데의 직선적이면서도 시적인 렌즈는 그 자체로 천진하고 해맑은 오라를 뿜어낸다. “늘 새로운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해왔다”며 자분자분 얘기하는 그녀의 여전히 반짝이는 눈빛은 작은 체구를 단단하고 크게 느껴지게 한다.

1 해마다 일본 교토의 봄을 수놓는 국제적인 사진 축제인 교토그래피(KYOTOGRAPHIE) 2025는 ‘humanity’를 주제로 4월 12일 막을 열어 5월 11일까지 펼쳐졌다. Graciela Iturbide, Angel Woman, 1979, Sonoran Desert, Mexico © Graciela Iturbide. 2 다올의 후원으로 진행된 멕시코 작가 그라시엘라 이투르비데가 교토그래피 2025 전시를 찾아 ‘Our Lady of the Iguanas’(1979)라는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3 그라시엘라 이투르비데의 전시 모습. Photo by Kenryou Gu 4 패션지 <보그> 멕시코에 실린 다올과의 협업 작품. © Graciela Iturbide for Dior - Vogue Mexico 2023 5 코트다부아르의 인플루언서 출신으로 점차 성장하는 예술가로서의 면모가 돋보이는 20대 신예 래티티아 키(Laetitia Ky)는 쇼핑센터와 교토그래피 영구 전시장, 그리고 기온 지역의 아스포델에서 각각 전시를 가졌다. 사진은 아스포델 전시 모습. 6 Laetitia Ky, “Feminist”, 2022, Abidjan © Laetitia Ky 7 교토그래피 2025 기간에 델타 교토그래피에 전시된 래티티아 키의 작업. ※ 1, 3, 4, 6 이미지 제공: 교토그래피(KYOTOGRAPHIE) ※ 2, 5, 7 Photo by 교성연

80대 노장과 20대 신예의 돋보이는 개성
‘작은 거인’ 이투르비데와 알핏 대조적으로 보이는 젊은 신예 래티티아 키(Laetitia Ky)의 존재는 아마도 올해 교토그래피에서,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을 것 같다. 코트다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의 20대 인플루언서 출신으로 사진작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누군가의 시선으로는 ‘어느 날 셀럽’이 된 신데렐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온갖 도형으로 장식한 듯한 커다랗고 개성 넘치는 헤어스타일과 늘씬한 몸매를 담은 자신의 사진들이 작품 포트폴리오의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녀의 유명세는 그렇게 찾아오기는 했다. 한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나라이자 서아프리카 여성으로서 세상의 편견에 대한 고민이 불거졌던 그녀는 어릴 때부터 머리를 땅고 놀던 기억을 되살려 다채로운 헤어스타일을 통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유롭게 내보이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인스타그램 스타가 되어 있었다고. “저는 운 좋게도 열린 마인드를 지닌 부모님을 두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녀는 처음엔 열빈 반응을 대개의 젊은이들처럼 즐겼고, 차츰 생각보다 자신의 예술적인 ‘헤어 사진’이 큰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그리고는 스스로의 길을 과감히 개척하기로 했다. “사실 아이보리공화국에서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이란 그리 간단한 게 아니예요. 그래서 저의 헤어를 활용해 여러 다른 주제들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죠.” 래티티아 키는 지난해 교토그래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거치기도 하면서 올해 행사에서 여러 장소에서 각기 다른 개성의 전시를 하는 기회도 가졌다. 데마치 마스가타(Demachi Masugata) 쇼핑아케이드와 그 안에 자리한 교토그래피의 영구 전시장이자 양증맞은 카페이기도 한 델타 교토그래피에 그녀의 교토 체류기를 카메라에 담은 전시를 선보인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메시지를 머무른 여러 작업을 망라한 또 다른 전시를 기온 지역의 아스포델(ASPHODEL) 전시장에서 3층 공간을 채우는 제법 큰 규모로 열었다. 어떤 시작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신의 약점이 될 수도,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개성을 살리고 디지털 시대의 힘을 활용해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포용하자는 메시지를 당차게 던지는 래티티아는 인플루언서 출신이라는 편견 역시 아랑곳하지 않고 독학으로 사진을 배우며 성장해나가고 있다. 예컨대 헤어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비롯한 인권을 거론하고 성적 대상화되는 가슴을 스스로 노출한 사진 작업도 사회적 금기와 편견을 얘기한다. 얼마 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이주(migration)’를 주제로 연 화제의 미술관 페닉스(Fenix) 개관전에서 그녀의 작품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절로 빙그레 미소가 지어졌다.

존 버거는 삶에 대한 시각적 증거로서의 사진을 말하면서 어떤 차원에서 그 삶의 증거는 사회적 발언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런 증거는 다른 이들이 살아온 삶의 총체성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삶에서는 우리 자신도 그저 하나의 광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타자를 중심으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의 광경 속에서 주인공도 되고, 친구도 되고, 티끌은 관찰자가 되기도 하면서 한때 어우러지는 게 아닐까. 누군가에 오롯이, 경건하게 집중하는 카메라 렌즈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평범한 동작 가운데 때때로 아주 소중하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 같다. 글 교성연



Magic of Metamorphosis

올해 까르띠에는 다시 한번 마법 같은 위치메이킹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현대의 연금술사처럼 스톤과 금속을 고귀한 오브제로 변모시키는 것은 물론, 위치메이커로서 메종의 시그니처 크리에이션의 풍부한 유산을 새롭게 해석하고, 스타일 코드를 더욱더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것. 까르띠에에 시간은 단순한 측정의 대상이 아닌 무한한 변형과 재창조의 가능성을 품은 예술 그 자체다. 이 훌륭한 위치메이커는 또 한번 찬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탁월한 기술이 어우러진 이번 컬렉션을 통해 진정한 마법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인다.



© CARTIER ©Valentin Abad

놀라운 변화를 거듭하다, Tank Louis Cartier

메종의 아이코닉한 위치 중 하나인 탱크, 까르띠에는 섬세한 스타일적 연구와 정교한 기술력의 발전을 통해 이 디자인 아이콘을 발전시켜 왔다. 1917년 탄생 이후 형태와 크기, 소재, 다이얼의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모색해온 것. 이러한 진화를 통해 탱크 상트레, 탱크 쉬누와즈, 탱크 아시메트릭, 탱크 아메리칸, 탱크 프랑세즈, 그리고 최근에 선보인 광견지 솔라비트™ 무브먼트를 장착한 탱크 머스트까지, 많은 형태를 탄생시켰고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올해 새롭게 탄생한 탱크는 1922년 루이 까르띠에의 오리지널 탱크의 후속작으로 탱크 탄생 이후 5년 만에 새롭게 재해석된 모델이다. 한층 더 길어진 케이스에 더 섬세해진 샤프트, 부드럽게 다듬은 직사각 형태가 특징이다. 여기에 새로운 오토매틱 와인딩 메커니컬 매뉴팩처 무브먼트 1899MC를 탑재해 더 큰 사이즈로 탈바꿈했다. 탱크만의 세련된 비율과 라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커진 사이즈로 탱크만의 상징적 특징인 레일 트랙, 로마숫자 인덱스, 평행을 이루는 샤프트, 블루 스틸 검 모양 핸즈 등의 매력에 더 흠뻑 빠져들게 한다. 소재는 핑크 골드와 옐로 골드로 선보인다.

2

© CARTIER ©Valentin Abad

시간을 읽는 새로운 방식, Tank à Guichets

까르띠에는 매년 아이코닉한 타임피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올해의 주인공은 1928년 처음 등장한 타임피스를 재해석해 출시한 탱크 아 기쉐다. 2개의 창으로 시간을 표시하며 점핑 아워와 드레킹 미닛을 활용한 회전 디스크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은 마치 지금의 디지털 시계를 보는 듯한 놀라움을 자아낸다. 시대를 앞선 방식으로 시간을 표시하는 이 타임피스는 늘 '시간을 읽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까르띠에의 철학을 그대로 답했다고 할 수 있다. 12시 방향과 6시 방향에 윈도우를 배치한 오리지널을 그대로 복각한 버전과 10시 방향과 4~5시 방향 사이에 디스플레이를 배치해 약간의 위트를 더한 버전으로 출시한다. 앞선 버전은 옐로·핑크 골드, 플래티넘 등 세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며 후속 버전은 플래티넘 케이스로만 선보인다. 가로세로 24.8×37.6mm이며 두께는 6mm다. 네 가지 버전 모두 새로운 세대의 탱크 아 기쉐 위치를 위해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인하우스 수동 칼리버 9755MC로 구동한다.

1 (왼쪽부터) 버건디 컬러 아라비아숫자 및 미닛 트랙과 같은 색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탱크 아 기쉐 워치, 옐로 골드에 그린 컬러 조합 버전, 핑크 골드에 다크 그레이 컬러 조합 버전, 플래티넘 소재에 10시 방향과 4시 방향에 윈도우를 배치한 버전의 탱크 아 기쉐 워치. 2 핑크 골드 소재 케이스에 세미-매트 브라운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매치하고 실버 마감 스템핑 옐로 바니시 다이얼과 검 모양 블루 스틸 핸즈로 마무리한 탱크 루이 까르띠에 워치. 3 워치스 & 워터스 2025 행사장인 팔레스포 내 까르띠에 부스. 탱크의 아이코닉한 스퀘어 세이프를 담은 회전하는 오브제를 설치했다.



© CARTIER



1



2

1 옐로 골드 케이스 및 핀 버클에 블랙 래커 다이얼과 사이니 블랙 카프 스킨 스트랩 및 스무스 블랙 카프 스킨 세컨드 스트랩을 매치한 트레사쥬 워치. 2 (왼쪽부터) 화이트 골드 소재의 케이스 및 핀 버클, 다이얼에 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세팅한 버전. 화이트 골드에 케이스와 핀 버클, 다이얼까지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버전. 스무스 네이비 블루 카프 스킨 스트랩과 사이니 블랙 카프 스킨 세컨드 스트랩을 제공한다. 옐로 및 화이트 골드에 케이스와 핀 버클, 다이얼에 모두 다이아몬드를 풀 세팅하고 사이니 베이지 카프 스킨 스트랩으로 완성한 트레사쥬 워치. 3 핑크 골드 소재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스페르타이트 및 블랙 래커를 세팅한 팬더 드 까르띠에 워치. 4 화이트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세팅하고 에메랄드와 오크스로 눈과 스코트, 코를 완성한 팬더 주얼리 워치. 5 옐로 골드 소재 팬더의 페이스 부분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블랙 래커와 오크스로 코와 스코트를 완성한 팬더 주얼리 워치.

독창적인 연금술로 만들어낸, Tressage

이번 워치스 & 원더스에서 선보인 것 중 까르띠에 테마와 가장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워치 컬렉션. 독특한 형태나 다양한 스톤의 변주로 마법 같은 세이프를 이루는 트레사쥬는 마치 연금술을 보는 듯한 황홀함을 선사한다. 이 워치 디자인은 잔느 투상이 남긴 아카이브 피스에서 비롯되었다. 까르띠에 특유의 볼륨감과 섬세한 짜임 디테일을 결합해 워치 컬렉션으로 탄생시킨 것. 따라서 메종의 코드에 충실하면서도 마이옹·꾸쌍·리플렉션 워치의 유산을 이어간다. 볼륨감 넘치는 2개의 트위스트 줄이 양쪽에서 직사각형 다이얼을 감싸는 형태이며, 가죽 스트랩으로 마무리했지만 전혀 이질감 없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옐로 골드 및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화이트 골드에 사이니 베이지 송아지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 옐로 골드에 블랙 래커 다이얼과 사이니 블랙 송아지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 화이트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풀 파베 세팅하고 네이비 블루 송아지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세팅하고 사이니 네이비 블루 송아지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까지, 총 네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며 퀵즈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약 30m의 방수 기능까지 더했다.

© CARTIER © Maud Remy Lonvis



© CARTIER © Lisa Johavic



마법은 까르띠에 위치메이킹 버전의 중심에 있습니다. 스톤과 금속을 고귀한 오브제로 변모시키는 장인들의 독보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까르띠에는 특별한 시계들을 창조합니다”_by 까르띠에 SA 대표 & CEO 루이 페를라(Louis Ferla)

4



3

© CARTIER © Simone Cavadini



© CARTIER © Simone Cavadini

5

하이브리드 건축 작품, Panthère Jewellery Watch

팬더는 주얼리 메종이기도 한 까르띠에의 크리에이션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컬렉션이다. 이번에도 주얼리와 위치메이킹의 경계를 허물고 까르띠에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팬더 주얼리 워치는 작년에 출시한 리플렉션 드 까르띠에 워치와 비슷한 뱅글 형태를 띤다. 이번에는 팬더의 얼굴과 워치의 페이스, 즉 두 얼굴이 만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늘 그렇듯 팬더는 역동적인 몸짓, 날렵한 선, 귀와 코, 그리고 발바닥까지 정교하게 완성했다. 블랙 래커 다이얼로 완성한 옐로 골드 버전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버전으로 선보인다. 특히 2백30시간에 걸친 섬세한 주얼리 메이킹과 폴리싱, 세팅 과정을 거친 화이트 골드 버전은 하이 주얼리만큼이나 웅장하고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한다. 문의 1877-4326

에디터 성경민

Eternal Attraction

샤넬 하우스를 상징하는 여러 요소의 정점에는 언제나 숫자 5가 존재한다. N°5 향수와 2.55 백으로 유명한 이 모티브를 이터널 N°5 주얼리 컬렉션으로 만나보자.



아이코닉한 N°5의 정신
1920년대 초, 당시 여성들이 사용하던 단순한 꽃향기에서 벗어나 독창적이고 모던한 향을 원했던 가브리엘 샤넬 앞엔 여러 개의 향수 샘플이 놓인다. 그녀는 그중 다섯 번째 향수 보틀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향수 N°5의 시작이다. 이 향수부터 매년 중요한 컬렉션을 발표하는 5월 5일과 이제는 레전드가 된 2.55 핸드백까지, 샤넬에 숫자 5는 관능적이고 구조적인 세이프 덕분에 훌륭한 디자인 모티브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잠재력을 넘어, 성공과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숫자 5를 모티브로 하는 주얼리 컬렉션은 2021년에 첫선을 보였다. N°5 향수 탄생 100



주년을 기념해 공개한 특별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이었는데, 그중에서도 55.5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55.55 네크리스가 큰 이슈가 되었다. 그 후 이를 모티브로 한 다채로운 주얼리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였고, 올해는 1932년 가브리엘 샤넬이 선보인 '비쥬 드 디아망'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들을 선보인다. '비쥬 드 디아망'은 샤넬의 첫 번째 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 별빛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롭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제품으로 가득했다. 가장 작은 형체에 가장 큰 가치를 담을 수 있어 다이아몬드를 선택했다는 샤넬의 말처럼, 작은 반짝임을 극대화하는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터널 N°5' 컬렉션 역시 매력이 넘친다. 무엇보다 디자인이 과하지 않아 데일리 룩에도 안성맞춤이라 올해도 센스 있는 여성들의 마음을 훔칠 예정이다.

2025년 샤넬 N°5 신제품
조향사 에르네스트 보(Ernest Beaus)가 만든 이 전설적인 향수 N°5의 감성을 이터널 N°5 주얼리 컬렉션에서 만날 수 있다. 올해의 여러 신제품 중 제일 눈에 띄는 두 가지는 이터널 N°5 다이아몬드 라인에서 출시한 길이 조절 가능한 네크리스와 인비저블 잠금장치로 매력을 더한 브레이슬릿. 가브리엘 샤넬의 러키 넘버 5 모티브 중앙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1932년부터 이어져온 하우스의 시그니처인 클로즈드 세팅(closed setting) 방식으로 장식했다. 네크리스는 5 모티브 끝에 향수 방울을 형상화한 다이아몬드 드롭 장식으로 경쾌한 리듬감을 더했는데,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줄의 반짝임과 골드의 순수함이 대비를 이루며

3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이터널 N°5 링. 올해는 N°5 향수의 황금빛을 연상시키는 18K 옐로 골드로 제작한 브레이슬릿, 링, 싱글 이어링도 함께 선보여 이터널 N°5 라인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4 18K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이터널 N°5 변형 가능한 이어링. 5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숫자 5의 곡선 중앙에 GIA 인증을 받은 0.37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N°5 향수의 드롭 디테일을 더한 이터널 N°5 다이아몬드 라인 네크리스.

6 이터널 N°5 다이아몬드 라인 브레이슬릿은 18K 화이트 골드, 베이지 골드, 그리고 옐로 골드 버전으로 선보인다. 8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이터널 N°5 네크리스.



심세한 매력을 뽐내낸다. 짧은 초커 스타일로도 연출할 수 있어 젊고 경쾌한 스타일링에도 완벽하다. 브레이슬릿은 향수 보틀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숫자 5의 중앙에 정교하게 잠금장치를 숨겼는데, 2.55 핸드백 잠금장치에서 영감을 받아 고안한 디자인으로 샤넬의 독특한 미학을 느끼게 한다. 글 장려윤

“올해는 1932년 가브리엘 샤넬이 선보인 '비쥬 드 디아망'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들을 선보인다”

“

숫자 5를 모티브로 하는 주얼리 컬렉션은 2021년에 N°5 향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공개한 특별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부터 시작되었다”

1, 7 18K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이터널 N°5 네크리스. 화이트 골드, 베이지 골드, 그리고 옐로 골드 버전으로 선보인다. 2 18K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이터널 N°5 다이아몬드 라인 네크리스. 엑스트레 드 N°5 링, 이터널 N°5 브레이슬릿.



2백70년 동안 위치제잉 기술과 예술의 유산을 정교하게 쌓아온 바젤론 콘스탄틴. 위치스 & 윈더스 2025 부스에서 메종의 프로젝트 & 이노베이션 디렉터, 산드린 동기(Sandrine Donguy)를 만났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바젤론 콘스탄틴의 미학과 혁신의 본질.



스타일 조선일보(이하 SC) 먼저 바세론 콘스탄틴 설립 270주년을 축하하고 싶다. 이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는 기분이 어떠한가?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바세론 콘스탄틴은 2백70년 동안 무브먼트 제작 기술을 발전시켜왔을 뿐 아니라 위치를 소회화하고 포켓 위치, 손목식 압정을 만드는 등 위계미키잉의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혁신과 발전을 이룩했다. 그와 동시에 미학과 기술이 균형을 이루는 디자인을 유지했다. 바세론 콘스탄틴은 이제 두 가지 영역을 마스터해 구축한 오랜 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덕분에 여전히 놀라운 역량을 지닌 매뉴팩처로 자리매김했다. 그뿐 아니라 적절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발전을 이어나가고 싶다.

SC 앞서 설명한 더 버클리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외에도 워싱턴 & 윈다스에서 새로 공개되는 위치들의 테마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을까? 올해를 기념하는 테마는 바로 '퀘스트(The Quest)'다. 퀘스트는 기술력의 탁월함, 장인 정신, 열정, 정확함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우선 탁월함의 측면에서 보면 하이 워치메이킹 노하우를 마스터하며 품질에 대한 타협 없이 제네바 출마의 인증을 통해 모든 디테일을 세심하게 완성했다. 장인 정신의 측면에서는 다사일 장식과 인그레이빙, 칼바라 자레에 대해서도 마스터했다. 또 이를 위해 메종의 일원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며 뛰어난 아이디어를 찾아 나서고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는 점에서 '열정'이란 퀘스트를 설명할 수 있다. 메종을 만들어가고 청초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이 부분에서 '정확성'을 추구하는 여정이기도하다. 말테코르스는 상징일 뿐이지나한 하이 워치 메이킹의 일부이기도 하기에 기능 설정에서 가장 정확하고 미학적으로도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울버는 위치에 배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정확성에 대한 퀘스트 역시 바세른 콘스탄틴의 본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SC 신제품 중 가장 눈길을 가는 건 새로운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칼리버 2162 QP/270를 탑재한 트래디셔널 톨루비옹 페퍼추얼 캘린더이다. 하지만 이러한 하이 칼리버계이션은 다른 워치 메종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바셀른 콘스탄틴만의 특별한 무엇인가?

메종의 투르비옹 베이스 칼리버 2160의 경우 엔지니어들은 처음부터 베이스 칼리버 위에 모듈을 얹었을 때 치구마 두꺼워져 보이스 압도록 모듈을 포함한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르비옹이 필요하면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에도 필요하고 그 위에 투르비옹과 페퍼추얼 캘린더까지 조합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메종이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 명확한 비전 아래 설계가 이뤄진다.

바셀른 콘스탄틴은 늘 이러한 방식으로 시계를 제작한다. 멀리 내다보는데, 네덜란드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먼 미래를 대비하며 처음부터 기술적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접근 방식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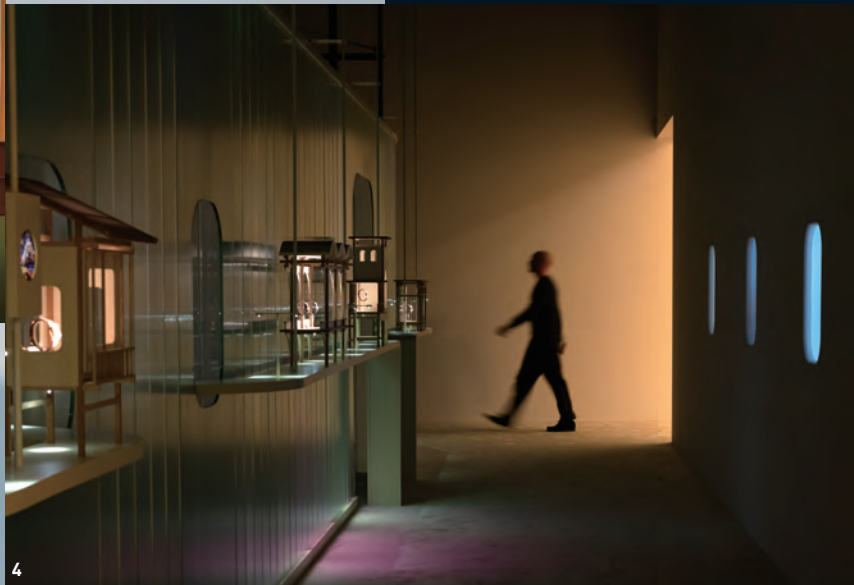


SC 한국에서 바세로 콘스탄틴의 입지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니까? 바세로 콘스탄
틴은 한국에서 여성적인 매력으로 큰
성취는 경험하 기한다. 하지만 한국
래식하면서도 스포티브 스타일
은 물론 매우 우아하고 섬세
한 여성용 타임피스도 선보
일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
다. 따라서 서울에 오픈하는 플
래그십 스토어는 중요한 다리 역
할을 할 것이다. 워치메이킹 워크숍
세션과 같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며, 바세로 콘스탄틴만의 예술성
을 강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이다. 또 앞서 언
급한 고객 의요청으로 8년간 제작한 더
랜드 컴플리케이션과 같은 경험이 한국에서
를 바란다. 바세로 콘스탄틴은 앞으로 최상
으로 고객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워
치에 대한 노하우와 예술성을 표현할 것이다.
백70년 동안 이어져온 바세로 콘스탄틴의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문의 1877-4306-
앞면

(원곡 아래부터 차례대로) **피델리토**
이코니카 리버시를 **네크리스**로 대체했다. 전통과
 컨셉따라하면 어울림은 남은 디자인으로
 18K 로즈 골드에 재미있는 문양을 넣고 그
 안에 다이아몬드 세팅해 독특한 감성을
 전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디올 **핀인주얼리 로즈 셀레스트 네크리스**
 예슬에 들어 무수 디올의 열정적 경의
 표하는 **셀레스트**로 대강과 달을 모티브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와 머모보트,
 은닉스로 달과 별이 문 발하늘을 그려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티파니 **티파니** **라크 셀렉트** 1883년 자물쇠
 브로치에서 영감을 받은 **셀렉트**으로 18K 옐로
 골드 소재에 하프 핀네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프레스오 **프리드 우먼 힐프리스 네크리스**
 브란드의 아이러니컬한 해 모티브로
 탄생한 **프리드 우먼 셀렉트**, 핑크
 골드 소재에 머모보트 장식 및
 다이아몬드 파페 세팅으로 완성했다.
 1천2백6만원. 문의 02-514-3721
 반올림로 **아벨 조디악 아쿠아리우스**
네크리스 메종이 사랑하는 포케트
 아스트로노미 티마에 영감받아 1950
 년대부터 전통을 이어온 셀렉스의
 펜던트로 물방자치 일러스트를 18K
 로즈 골드와 에벤추린 1개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불리거 **카보숄 네크리스** 카보숄
 컷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펜던트로
 18K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 파페 세팅으로 완성을 전했다.
 1천30만원. 문의 02-6105-2120
 피아제 **선라이트 네크리스** 메종이 가장 중요한
 태피즈 중 하나이자 영감의 원천인 금빛
 모티프를 담은 형태로 재탄생 18K 로즈
 골드에 1백3개의 브르글로 컷 다이아몬드
 및 1.84캐럿을 총 세 세팅한 **네크리스** 1천7백
 30만원. 문의 1668-1874 에디터 **성정비**

메달 하나만으로 존재감을 발휘하는 펜던트 네크리스.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2



Watches & Wonders 2025

더 이상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박람회가 아니다. 오늘날의 워치스 & 원더스는 시계를 사랑하는 전 세계 애호가와 워치메이킹의 도시, 제네바가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축제로 진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워치 메종은 브랜드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럭셔리와 고유한 위상과 대중적 접근성의 균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긴장감 속에서 변함없이 찬란한 시간을 기록해나가는 현장을 (스타일 조선일보)가 직접 찾았다.

5

작년보다 한 주 앞당겨진 4월 1일, 올해도 어김없이 지상 최대의 워치 박람회, 워치스 & 원더스가 제네바 팔렉스포에서 성대히 막을 올렸다. 매년 규모와 영향력을 키워가는 이 행사는 이번에도 역대급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총 5만6천 명 이상의 관람객을 맞이했다. 특히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오랫동안 행사장 밖에서 독자적인 신제품 발표를 이어오던 불가리가 드디어 공식 브랜드로 합류했다는 점이다. 불가리 같은 빅 주얼리 & 워치 메종이 합류하면서 워치스 & 원더스는 한층 더 풍성해졌고, 더욱 강력한 파급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메종들이 꺼내 든 해답은 '화려함'이었다. 비비드한 컬러 팔레트와 주얼리적 요소를 가미한 시계가 대거 등장하며, 그 어느 해보다 감각적이고 대담한 미학을 선보였다. 키 컬러는 '블루', 샤넬은 메종 최초로 선보인 블루 세라믹 소재의 J12를 통해 깊이 있는 매트 텍스처를 선보였고, 제니스, 위블로, 튜더, 롤렉스 역시 자신들만의 색채 해석을 통해 다양한 블루 컬렉션을 공개했다. 여기에 레드와 버건디도 트렌드 컬러로 부상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에르

1, 2 팔렉스포를 방문한 배우 김우빈과 전지현. 3 몽블랑 부스. 4 에르메스 워치 부스. 5 제네바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워치스 & 원더스 행사를 알리는 깃발이 나무끼는 풍경. 6 제니스의 신작 G.F.J 워치. 7 메종 탄생 270주년을 맞이한 바쉐론 콘스탄틴 부스. 8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헤리티지 파스를 전시한 로저드뷔 부스.

메스와 튜더는 절제된 버건디 컬러로, 위블로는 브랜드 특유의 기술력으로 완성한 레드 세라믹 소재의 빅뱅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기념비적 해를 맞이한 브랜드도 여럿 있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창립 270주년을 기념해 다시 한번 기술력의 장점을 보여주는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공개했고, 제니스는 창립 160주년 기념 워치로 브랜드 창립자 조르주 파브르-자코의 이니셜을 딴 신작 'G.F.J'를 선보였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로저드뷔는 워치메이킹 기술을 한 데 집약한 엑스칼리버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워치로 이

를 기념했다. 위블로 역시 빅뱅 탄생 20주년을 맞아 오리자널 빅뱅과 현재의 빅뱅 유니코를 결합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이처럼 특별한 해를 맞이한 브랜드가 많아서인지, 과거의 시계를 다시 꺼내 재해석하거나, 디자인적 DNA를 바탕으로 새로운 라인을 구성하는 움직임은 올해 워치 인더스트리 전반에 널리 퍼졌다. 피아제의 '식스티(Sixtie)' 역시 과거 여성 네크리스 워치의 실루엣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모델이다.



“올해 팔렉스포 전시장 내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다채로운 경험으로 가득했다. 이는 워치스 & 원더스가 매년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워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다. 바로 여성의 얇은 손목 사이즈에 맞춰 다운사이징된 워치 혹은 주얼 워치의 확장이다. 에르메스는 대표 체인 모티프를 활용한 '마이웅 리브르'를 공개했으며, 여성 고객층을 겨냥한 펜던트형 워치와 브레이슬릿 워치로 선보였다. 반클리프 아펠은 주얼 워치 '까테나'를 다시 선보였고, 불가리는 뱅클 실루엣의 '세르펜티', 까르띠에는 '트레사쥬' 워치 등으로 그 흐름에 힘을 보탰다. 이렇듯 올해 워치스 & 원더스에서는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새로운 고객층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워치 브랜드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으며, 단지 시계를 선보이는 자리를 넘어 시대정신에 응답하는 메종들의 섬세한 전략이 돋보였다.

럭셔리, 하이엔드 워치 경험의 장, 팔렉스포
올해 팔렉스포 전시장 내부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경험으로 가득했다. 워치스 & 원더스가 매년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듯, 각 브랜드는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감각적 체험과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몰입형 공간을 시도했다. 특히 세계적인 셀러브리티들의 방문이 더해져 행사장 곳곳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올해도 한국 셀러브리티의 존재감은 단연 눈에 띄었다. 피아제는 글로벌 엠베서더로 배우 전지현을 초청해 그녀의 우아한 카리스마와 '식스티' 워치의 섬세한 조화를 선보였다. 예거 르쿨트르는 배우 김우빈을 통해 '리베르소' 워치의 절제된 우아함과 남성적인 미학을 드러냈다. 한스 짐머와 하비에르 바르뎀은 오는 6월 개봉 예정인 영화 <F1>의 음악감독과 주연 배우로서 공식 파트너이자 워치 엔지니어로 협업한 IWC 부스를 방문하며 열기를 더했다. F1® 열기에 불길을 더한 브랜드가 하나 더 있었다. 약 30년 만에 F1® 공식 타임키퍼로 화려하게 복귀한 태그하이어가 그 주인공이다. 부스 위치를 옮겨 더 확장했으며, 전설적인 드라이버들의 레이싱 카를 전시해 모터 레이싱의 DNA를 강렬하게 부각했다. 전통과 혁신이 맞닿는 부스 연출도 한층 더 정교해졌다. 몽블랑은 알프스 산재를 재현한 부스를 통해 장인의 정신을 체험형 공간으로 구현했고,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의 탄생 배경인 1931년 폴로 클럽을 테마로 한 전시 공간을 통해 메종의 역사적 순간을 극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에르메스는 올해의 테마 'Le Temps Suspendu'(멈춰진 시간)'를 시네마틱하게 구현하기 위해 비주얼 아티스트 사라-아나이스 데브누아(Sarah Anais Desbenoit)와 협업해 브랜드 고유의 상상력을 가득 담은 공간을 완성했다. 이처럼 2025년의 팔렉스포는 각 브랜드가 품은 철학과 감성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무대였으며, 보는 이들에게 하나의 '기억'으로 남을 정제된 시간의 경험을 선사했다. 에디터 성장민(제네바 현지 취재)

시간을 초월한 융합의 미학

2005년, 하나의 혁신이 시계를 재정의했다. 위블로 빅뱅은 전통과 미래,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단순한 위치를 넘어 ‘아이콘’이 되었다. 그 시작으로부터 20년, 위블로는 헤리티지와 진화를 하나로 아우른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또 한번 시간의 패러다임을 흔든다.



위블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위치 컬렉션, 빅뱅이 탄생 20주년을 맞이했다. 2005년 마케팅 전채라 불리던 장-클로드 비버(Jean-Claude Biver)가 CEO로 부임하며 선보인 첫 컬렉션으로 이제 위블로의 아이콘이 되었다. 위블로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과거의 헤리티지와 현재를 결합한 특별한 위치 컬렉션을 선보인다. 오리지널 빅뱅의 디자인과 현재의 빅뱅 유니코를 결합한 다섯 가지 리미티드 에디션이 그 주인공이다. 물론 ‘아트 오브 퓨전(Art of Fusion)’이라는 브랜드 가치와 소재의 연금술사라는 별칭답게 소재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잊지 않았다.

해 빅뱅 특유의 실루엣을 보여준다. 기본 파이버를 연상시키는 양각 패턴을 더한 다이얼에는 아이코닉한 리벳 아라비아숫자와 인덱스가 자리하며, 오리지널 빅뱅과 동일한 디자인에 빅뱅 유니코의 슈퍼-루미노바®를 더했다. 또 다이얼에는 2개의 카운터를 배치하고, 9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즈를, 3시 방향에는 크로노그래프 분 카운터를 배치했다. 유니코 오토매틱 매뉴팩처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탄생 20주년을 기념하는 골드 로터로 특별함을 더했다. 초기 오리지널 빅뱅을 연상시키는 다이아몬드 형태가 반복되는 기하학적 디자인의 ‘트레드’로 장주 패턴의 구조적인 러버 스트랩은 빅뱅 유니코의 원 클릭 스트랩 교체 시스템을 적용해 케이스에 부착했다.

1 지름 43mm 마이크로 블라스트 폴리시드 블랙 세라믹 소재로 완성한 빅뱅 20주년 기념 올 블랙, 2 위블로만의 18K 킹 골드 케이스로 완성한 지름 43mm의 빅뱅 20주년 기념 킹 골드 세라믹.

모든 것의 시작, 오리지널 퓨전으로의 회귀 티타늄 세라믹 & 킹골드 세라믹 먼저 위블로는 빅뱅 컬렉션의 최초 디자인과 소재에 주목했다. 빅뱅 20주년 기념 에디션은 티타늄 세라믹 5백 피스, 킹 골드 세라믹 2백50피스 리미티드로 선보이며, 모든 디테일을 더욱 세밀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케이스는 지름 43mm로 새롭게 단장하고 곡선형으로 디자인한 핀치드 러그가 특징이다. 폴리싱 처리한 베젤에는 초기 빅뱅 모델에서 돋보인 톱니 모양의 베젤 에지를 적용했다. 첫 번째 빅뱅 모델에 사용했던 러버 탑이 달린 직사각형 푸셔와 로장 주 텍스처가 있는 다이아몬드 패턴 러버 스트랩 역시 재현했는데, 이번에는 원 클릭 시스템 덕분에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카본 패턴 다이



얼은 더욱 극적인 3D 시각적 효과와 그림자 및 텍스처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기 위해 새롭게 디자인되었다. 크로노그래프의 빨간색 악센트는 가독성을 더욱 높인다. 특별한 골드 오실레이팅 웨이트와 러버가 삽입된 독특한 각인 크라운이 특징이며, 20주년 기념 로고를 새겼다.

강렬한 컬러, 레드 세라믹

세라믹은 빅뱅의 탄생과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빅뱅의 탄생을 시작으로 쌓아온 컬러 세라믹에 대한 위블로의 전문성과 노하우는 독보적이다. 위치메이킹 세계에서 전례 없는 선명한 색상의 세라믹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며 매년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컬러 세라믹은 다루기 매우 어려운 소재로 적절한 색상을 선택하고 재료의 구조적 완전성을 유지하며 색상이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알맞은 압력과 온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위블로가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컬러 세라믹은 2018년 공개된 레드 세라믹이다. 위블로는 브랜드를 혁신의 최전선에 서게 해준 이 첫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빅뱅 20주년 기념 레드 매직 에디션을 다섯 번째 모델로 완성했다. 선명한 레드 세라믹과 카본 패턴 다이얼의 조합은 대담하고 독창적이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1백 피스 한정으로 제공된다.

보이지 않는 가시성, 올 블랙

올 블랙 세라믹은 혼한 듯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위치 브랜드마다 고유의 색으로 구현하기 위해 그 어떤 컬러풀한 위치보다 더 공을 들이는 것이 바로 올 블랙이다. 컨템퍼러리 위치 디자인에서 위블로의 올 블랙은 혁신적인 개념으로 디자인의 게임 체인저로 손꼽힌다. 2006년 첫 번째 빅뱅 올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을 통해 공개된 이 대담하고 전례 없는 콘셉트는 럭셔리 타임피스에서 우리가 기대해온 기능성이나 가독성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가시성’이라는 대담한 개념을 제시했다. 색상과 빛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가장 미세한 디테일까지 특별하게 강조되며 은밀하고 매혹적인 매력을 선사한다. 빅뱅의 20주년 기념 에디션에 올 블랙이 빠질 수 없는 이유다. 매트 및 폴리시드 블

3 폴리시드 매직 골드 케이스의 빅뱅 20주년 기념 폴 매직 골드. 4 폴리시드 새틴 마감 티타늄 소재 케이스를 적용한 빅뱅 20주년 기념 티타늄 세라믹. 양각 패턴 다이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5 빅뱅 20주년 기념 티타늄 세라믹. 6 위블로만의 소재에 대한 노하우로 완성한 레드 컬러 세라믹 소재가 돋보이는 빅뱅 20주년 기념 레드 매직.

혁신이라는 이름, 매직 골드

소재의 연금술사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한 위블로의 가장 특별한 소재, 매직 골드 역시 20주년 기념 에디션에서 빼놓을 수 없다. 위블로는 스크래치에 약한 18K 골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세계 최초로 매직 골드를 탄생시켰다. 전통적인 소재와 금속의 단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위블로의 연구 개발 부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나타낸다. 그것은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존 소재의 단점을 개선하는 것. 매직 골드는 세라믹의 내구성과 골드의 광택을 결합해 미세한 녹색이 감도는 황금빛을 띠며 스크래치와 산화에 강한 독특한 소재다. 위블로 매뉴팩처에서 개발하고 자체 주조소에서 생산하며, 이 역시 빅뱅 20주년 기념 에디션에 적용해 1백 피스 한정으로 출시한다. 독특한 18K 골드 합금과 카본 패턴 다이얼, 골드 색상 핸즈와 마커를 결합해 톤과 텍스처 면에서 완벽하게 미래 지향적인 조화를 완성했다.





가장 순수한 블루,
위터 블루 사파이어 빅뱅 유니코

사파이어 소재를 잘 다루기로 유명한 위블로는 이번에도 사파이어 위치 컬렉션을 빼놓지 않고 출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빅뱅 유니코 위터 블루 사파이어는 위블로만이 재현할 수 있는 투명성을 지닌 위터 블루 컬러로 또 한번 놀라움을 자아냈다. 열대의 맑고 투명한 물과도 같은 느낌을 주며 44mm 크기의 큰 케이스와 반투명 블루 러버 스트랩, 오픈 다이얼의 인텍스 및 핸즈에 블루 포인트를 더해 완벽한 조화를 선사한다. 빅뱅 유니코 위터 블루 사파이어는 첫 번째 인하우스 매뉴팩처 오토매틱 칼리버인 유니코로 구동하고, 현대적인 구조로 설계된 오토매틱 인터그레이티드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는 3백54개의 부품으로 간소화되어 내구성을 확보했다.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50피스 한정으로 출시한다.

독보적인 존재감,
빅뱅 20주년 마스터 오브 사파이어

다루기 힘든 소재로 유명한 사파이어를 가공하는 데 특별한 노하우를 지닌 위블로는 '마스터 오브 사파이어'라고도 불린다. 2016년 처음 사파이어 빅뱅을 선보인 후 이듬해 컬러 사파이어 케이스를 공개하며 위블로는 사파이어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발전시켜왔다. 그런 이유로 빅뱅 20주년 기념 에디션에 빠질 수 없는 소재임이 틀림없다. 단 5세트 한정 제작된 빅뱅 20주년 기념 '마스터 오브 사파이어' 세트는 각각 다른 사파이어 또는 삭셀 케이스의 빅뱅 MECA-10 모델 5점으로 구성된다. 투명 사파이어부터 위터 블루, 딥 블루, 퍼플, 그리고 네온 옐로 삭셀로 구성된다. 각각의 컬러는 위블로 사파이어만의 투명함을 잘 표현했으며, 오로지 5점 1세트로만 구입 가능하다.

- 1 빅뱅 20주년 기념 마스터 오브 사파이어 세트 중 폴라시드 네온 옐로 삭셀 컬러 버전.
- 2 빅뱅 20주년 기념 마스터 오브 사파이어 세트 중 폴라시드 퍼플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로 완성한 피스.
- 3 빅뱅 20주년 기념 마스터 오브 사파이어 세트 중 폴라시드 딥 블루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로 완성한 피스.
- 4 지름 44mm의 폴라시드 위터 블루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로 완성한 빅뱅 유니코 위터 블루 사파이어.

색채로 만개하다, 페트롤 블루와
민트 그린 세라믹으로 선보이는
빅뱅 유니코, 빅뱅 원 클릭 33MM 페어

선명하고 독특한 색상의 세라믹을 만드는 기술력 역시 위블로만의 특기다. 이번 빅뱅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두 가지 새로운 색상의 세라믹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깊고 따뜻하며 은은한 녹색이 감도는 페트롤 블루 세라믹과 시원한 파스텔 색조의 민트 그린 세라믹으로 완성한 빅뱅 유니코와 빅뱅 원 클릭 페어가 바로 그것. 빅뱅 유니코는 지름 42mm 사이즈로 제공되며 빅뱅 원 클릭 33MM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틸 베젤로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부여했다. 두 가지 모델과 컬러 모두 통일감을 주는 페트롤 블루와 민트 그린 톤 러버 스트랩과 매치했으며, 위블로만의 원 클릭 시스템으로 스트랩을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다. 모두 한정된 시즌 동안만 제공된다.



생동감 넘치는 컬러의 향연,
빅뱅 원 클릭 조이풀 33MM

위블로에서는 작은 사이즈의 위치를 원하는 남성을 위한 33mm 원 클릭 모델에서 5개의 새로운 레퍼런스를 공개하며 2000년대 초 빅뱅 모델에 사용된 화려한 컬러를 재현한다. 주얼리와 위치를 함께 선보이는 메종에서만 볼 수 있던 컬러 쥘스톤을 위치에 적용한 점도 흥미롭다. 덕분에 컬러 러버뿐 아니라 케이스까지 완벽한 컬러풀함을 선사한다. 빅뱅 원 클릭 조이풀 컬렉션은 총 다섯 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드 스핀넬, 옐로우 사파이어, 핑크 사파이어, 블루 토파즈, 그린 차보라이트로 베젤을 완성하고 각 컬러와 색을 맞춘 러버 스트랩을 매치했다. 전부 광택이 있는 화이트 다이얼을 채택했으며, HUB1120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로 최적의 작동을 보장한다.



- 5 폴라시드 페트롤 블루 세라믹을 적용한 지름 33mm의 빅뱅 원 클릭 페트롤 블루 세라믹 다이아몬드.
- 6 지름 42mm의 폴라시드 민트 그린 컬러 세라믹 케이스의 빅뱅 유니코 페트롤 민트 그린 세라믹.
- 7 지름 33mm 스틸 케이스에 36개의 핑크 사파이어를 세팅한 베젤을 더한 빅뱅 원 클릭 조이풀.
- 8 베젤에 36개의 옐로우 사파이어를 세팅한 빅뱅 원 클릭 조이풀.
- 9 위블로 매뉴팩처에서 이루어지는 제작 공정.
- 10 밤에 촬영한 위블로 매뉴팩처 외관.

혁신의 심장, 위블로 매뉴팩처

위블로의 혁신적인 소재와 위치 개발은 제네바와 로잔 사이 라코트(Lacôte) 지역에 위치한 위블로 매뉴팩처에서 이뤄진다. 기존에 있던 총 6,000㎡(약 1천4백15평) 규모의 6층 건물에는 기계 가공, 조립 및 컴플리케이션 공방, 그리고 행정과 연구 개발 부서 등을 두고 있으며 다리 하나를 건너 바로 옆에 새로운 매뉴팩처 건물이 탄생할 예정이다. 이는 8,000㎡(약 2천4백

20평) 규모로, 전체 부지 면적은 총 14,000㎡(약 4천2백30평)에 달한다. 이 신축 건물에서는 매뉴팩처 무브먼트의 부품 생산 및 위치 케이스 제조가 이루어지며, 보석 세팅, 장식, 전기도금 및 표면 마감 부서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또 행정 부서, A/S 센터, 직원 식당도 이 건물에 포함되어 있다. 기존 건물에는 경영진 사무실,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부서, 무브먼트 조립, 케이싱, 핸즈 및 브레이슬릿 장착, 컴플리케이션 워크숍, 품질관리 및 연구 개발 부서 등이 자리한다. 위블로는 세라믹 컬러의 조합부터 소재 및 무브먼트의 개발, 커팅 및 조립 등 모든 공정을 이 매뉴팩처에서 직접

진행하며 유기적이고 빠른 소통을 통해 혁신적이고 놀라운 위치를 빠르게 생산해내고 있다. 직접 그 공정과 매뉴팩처 규모를 눈으로 확인하니, 새로 오픈할 매뉴팩처 역시 기대된다. 문의 02-540-1356 에디터 성정민





매혹의 컬러, 블루

2000년에는 블랙 에디션, 2003년에는 화이트 에디션을 선보였던 J12가 올해 선택한 컬러는 블루. J12 출시 25주년을 맞아 블루 매트 세라믹 컬러를 선보인다. 블랙에 가까우면서 블루에서도 멀지 않은 옅은 컬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샤넬의 새로운 블루

블랙 & 화이트의 대명사였던 J12와 블루 컬러가 이렇게 환상의 팀워크를 이룰 줄 누가 알았을까. 그동안 블루 컬러는 1932년 탄생한 첫 하이 주얼리 컬렉션 '비주 드 디아망'을 시작으로 샤넬 패션, 뷰티에서만 선보여왔다. "샤넬의 세라믹은 샤넬 위치메이킹이 일구어낸 예술적인 소재입니다.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세라믹을 귀금속처럼 다룰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뛰어난 엔지니어들 덕분에 세라믹은 다양한 창조적 가능성을 펼칠 수 있고, 무한한 영감을 주는 소재로 거듭났습니다." 샤넬 위치메이킹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 아르노 샤프탱(Arnaud Chastaingt)의 말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블루 컬러 중 '블랙'에 은은한 블루 한 방울 떨어뜨린 '블루빛'을 구현하고 싶어 5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J12만을 위한 특별한 블루 빛의 각도에 따라 새로운 느낌을 주는 이 블루는 J12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기술력, 그리고 정교함과 조화를 이루며 올해 총 아홉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J12 블루 38MM 사파이어

베젤과 인디케이터에 총 58개의 천연 바게트 컷 사파이어를 세팅해 세라믹의 매트 피니시와 사파이어의 우아한 조화가 빛을 발한다. 수많은 보석 세팅 기술을 마스터한 위치메이킹 공방에서 천연 사파이어를 세팅해 샤넬의 뛰어난 보석 매칭 및 세팅 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오토 오톨로제리 모델에만 적용하는 COSC의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블랙 피니시 칼리버 J2.1을 탑재했다. 1백 개 리미티드 에디션.

J12 블루 칼리버 12.1 38MM와 J12 블루 칼리버 12.2 33MM 위치

세라믹 바게트 모티브 디테일이 신의 한 수. 인디케이터에 세팅한 바게트 컷 사파이어의 밝은 블루가 블루 세라믹과 만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38mm 위치 모델에는 칼리버 J2.1을, 33mm에는 칼리버 J2.2를 장착했는데, 둘 다 샤넬이 공동 소유한 스위스 케니시 매뉴팩처에서 제작한 블랙 코팅을 적용한 무브먼트다. 역시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

샤넬의 세라믹은 샤넬 위치메이킹이 일구어낸 예술적 소재입니다. 다양한 창조적 가능성을 펼칠 수 있고, 무한한 영감을 주는 소재로 거듭났습니다.”
_by 샤넬 위치메이킹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 아르노 샤프탱



J12 블루 X-RAY

깊고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에서 영감을 받은 투명한 블루가 특징. 1피스를 제작하는 데 무려 1천6백 시간이 소요된다. 큰 합성 사파이어 블록으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조각한 것이 인상적. 화이트 골드 베젤과 링크에 천연 사파이어를 1백96개 세팅했는데, 화이트 골드에 블랙 코팅 처리해 블루 컬러와 대비되도록 했다. 칼리버 3.1의 중심에 자리한 플레이트를 받치는 2개의 브리지는 무색 사파이어를 사용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1 워치스 & 웬더스 2025에서 블루 컬러로 깊은 인상을 남긴 샤넬 부스. 2 베젤과 다이얼엔 각 46개, 12개의 블루 사파이어를, 크라운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J12 블루 38MM 사파이어 위치. 3 견고한 매트 블루 세라믹 케이스가 돋보이는 J12 블루 칼리버 12.2 33MM 위치. 4 시리얼 넘버가 들어간 12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케이스 지름 38mm의 J12 블루 X-RAY 위치. 5 55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J12 블루 다이아몬드 투르비온 위치에 탑재한, 총 1백72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다이아몬드 세팅 플라잉 투르비온 무브먼트 칼리버 5. 6 점핑 아워와 레트로그레이드 미닛이 특징인 무수 슈퍼레제라 블루 에디션 위치.

J12 블루 다이아몬드 투르비온

샤넬 오토 오톨로제리의 정수를 담은 모델. 플라잉 투르비온 케이스 중앙에 세팅한 65면 솔리테어 다이아몬드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데, 덕분에 살짝 어두울 수 있는 블루 다이얼이 환하게 느껴진다. 베젤에 세팅한 34개의 바게트 컷 사파이어도 특징.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측면을 8시간 동안 수작업 폴리싱했으며 매뉴팩처에서 3년에 걸쳐 개발한 칼리버 5를 탑재했다. 파워 리저브는 최대 42시간, 케이스 지름은 38mm다.

J12 블루 42MM 사파이어와 J12 블루 28MM 사파이어

블랙같이 짙은 블루 세라믹과 스틸을 블랙 코팅한 라인이 미묘하게 대비를 이루며 독특한 미학을 완성했다. 케이스 지름 42mm와 28mm 듀오로 선보여 커를 위치로도 손색없다. 42mm 모델에는 1백70개의 바게트 컷 사파이어를, 28mm

모델에는 1백96개의 바게트 컷 사파이어를 세팅했는데, 이 2개의 케이스에 보석을 세팅하는 데만 1백1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무수 슈퍼레제라 블루 에디션

샤넬 남성 위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 무수 드 샤넬 슈퍼레제라의 세련된 스포츠 스타일을 블루 컬러로 새롭게 해석했다. 경주용 자동차의 속도계 디자인에서 영감받아 인스턴트 점핑 아워와 240도 레트로그레이드 미닛을 갖춘 컴플리케이션이 특징. 모터 스포츠의 전설적인 순간을 시계로 포착한 디자인으로 샤넬에서 디자인부터 개발 및 조립까지 전 과정을 진행한 칼리버 1을 장착했다. 견고한 매트 블루 세라믹과 스틸 소재를 매치한 케이스와 베젤, 블랙 기요세 다이얼, 송아지가죽 라이닝 및 트리밍을 넣은 나일론 스트랩이 에너제틱하다. 1백 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다. 문의 080-805-9628

글 장라윤



손끝에서 피어난 유산, 다미아니의 시간

무려 1백여 년간 이탈리아 주얼리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다미아니. 올해 워치스 & 윈더스에서 마르게리타·미모사·벨에포크 컬렉션의 새로운 주얼리들을 선보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글로벌 스토어 콘셉트를 선보이며 그들의 소중한 유산을 이어간다.



“다미아니가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우리는 솔직하고 강인하며 자유롭게 자기인식이 뚜렷한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
by 다미아니 CEO 제롬 파비에



이탈리아 대표 주얼리 다미아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경영 체제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주얼리 메종이다. 창립자 엔리코 그라시 다미아니(Enrico Grassi Damiani), 그의 뒤를 이은 아들 다미아노(Damiano)와 그의 아내 가브리엘라(Gabriella)를 거쳐 세 자녀 귀도(Guido), 실비아(Silvia), 조르지오(Giorgio)까지. 다미아니의 차별화된 디자인과 숙련된 장인들의 손길, 스톤에 대한 노하우는 이렇듯 뿌리 깊은 유산이 이어져왔기에 가능했다. 올해 다미아니는 새로운 콘셉트 스토어와 신제품들을 선보이며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코닉의 귀환

메종 다미아니는 세 가지 대표 주얼리 컬렉션을 갖추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여왕, 사보이의 마르게리타(Margherita of Savoy)에게서 영감을 받은 마르게리타 컬렉션부터 창립자 엔리코 그라시 다미아니의 아들인 다미아노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성, 아내 가브리엘라와 딸 실비아의 강인함과 끈기에 경의를 표하고자 탄생시킨 미모사 컬렉션, 엔리코 그라시 다미아니가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시작된 황금기 ‘벨 에포크’ 시대에 영감받아 탄생시킨 벨 에포크 컬렉션이 그것이다. 각각의 컬렉션은 그들의 개성과 색으로 아이코닉한 주얼리로서 자리매김했다. 먼저 마르게리타 컬



- 1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미모사 워치.
- 2 다미아니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선보인 미모사 워치. 푸른 다이얼 컬러가 돋보인다.
- 3 다이얼과 새틴 스트랩에 컬러를 더해 더욱 매력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한 미모사 워치 컬렉션.
- 4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그리고 무지갯빛 영롱한 광채를 지닌 화이트 카보숑 컷 오벌을 조합한 새로운 버전의 2025년 미모사 컬렉션 링.
- 5 다미아니 CEO 제롬 파비에.

렉션은 주얼리로 섬세하게 표현한 데이지 꽃 디자인이 특징이다. 데이지 꽃의 조화롭고 우아한 형태를 주얼리로 디테일하게 재현했으며, 이를 통해 한 송이, 여러 송이, 데이지 꽃이 만발한 형태 등 다양하게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마르게리타 컬렉션 제품들은 한층 더 생기 넘치고 유쾌한 무드로 완성했다. 데이지 모티브를 정교하게 배열해 화려한 카펫처럼 표현했으며, 각 골드 컬러는 센터 스톤의 컬러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세심하게 선택했다. 각각의 피스는 장인 정신과 디자인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주얼리에 생동감과 완성도를 더한다. 벨 에포크 컬렉션에서는 하트와 다채로운 컬러를 테마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다. 기존의 원과 사각형이 조화롭게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이탈리언 모던 스타일과 현대적인 느낌에 ‘하트’라는 모티브를 통해 사랑스러움을 더한 듯한 모습이다. 다양한 컬러 스톤을 사용해 컬러풀하고 생명력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지막으로 미모사 컬렉션이다. 올해 다미아니는 미모사 컬렉션을 더욱 풍성한 라인업으로 확장했다. 복잡한 형태의 미모사라는 식물은 다미아니의 주얼리 제작 노하우를 마음껏 펼쳐 보이기에 가장 적합한 컬렉션이다. 올해 미모사 컬렉션은 여성의 곡선을 닮은 유려한 실루엣과 마치 몸을 감싸듯 부드러운 형태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면에 노반신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해 컬렉션의 상징인 무질서 속 질서를 구현한다. 메종의 숙련된 금세공 장인들이 완성한 이 정교한 모자이크는 입체감과 광채를 극대화하며 주얼리 본연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한다. 이번 시즌에는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그리고 무지갯빛 영롱한 광채를 지닌 화이트 카보숑 컷 오벌을 조합한 새로운 버전의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링, 이어링을 추가해 컬렉션의 매력을 한층 배가했다.

력서리한 디자인과 장인 정신의 조화, 미모사 워치 컬렉션

작년 다미아니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특별한 워치 컬렉션을 출시했다. 주얼리 메종으로서의 노하우를 담은 입체적 디자인의 미모사 워치 컬렉션이 바로 그것. 기존의 미모사 워치의 다이얼과 새틴 스트랩에 특별한 컬러를 사용해 더욱 매력적이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우아함과 세련미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독특하고 특별한 미모사의 입체적 디자인은 다미아니가 탄생한 발렌차(Valenza)의 숙련된 금세공 장인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이 장인들이 핸드메이드 골드 베젤에 다양한 크기와 컷의 스톤을 세팅해 각각의 제품에 역동성과 개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 클래식한 블랙부터 초콜릿, 블루, 유니크한 파이어 레드와 보를 그린까지 다양한 색상으로 선보인다. 고급스러운 컬러 새틴 스트랩은 다미아니 메종만의 높은 기술력을 보여준다. 여기에 스위스 전문 워치메이커가 보증하며 최고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해 메종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품질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외에도 하이 주얼리에 버금가는 화이트·핑크·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미모사 워치들도 만나볼 수 있다. 미모사 컬렉션만이 선사하는 특유의 볼륨감으로 주얼 워치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다. 문의 02-515-1924

INTERVIEW with _ Jérôme Favier(CEO)

2018년 초 다미아니의 CEO로 합류한 제롬 파비에(Jérôme Favier)는 다미아니, 살비니(Salvini), 블리스(Bliss), 베니니(Venini), 칼데로니(Calderoni), 로카(Rocca) 브랜드를 보유한 이탈리아 럭셔리 그룹을 이끌고 있다. 주얼리 및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업체에서 20년 이상의 커리어를 쌓은 전문가답게 현대적인 경영 스타일로 다미아니 그룹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프로페셔널하고 유쾌한 웃음으로 에디터를 반갑게 맞아준 그를 만났다.

스타일 조션일보(이하 SC) 이탈리아 대표 주얼리로서 다미아니는 다른 주얼리 메종과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하다. 대형 럭셔리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다미아니는 현재까지도 창립자 가족의 3세대가 이끄는 가족 기업이다. 따라서 다미아니는 단순히 브랜드명이 아닌 장인 정신과 품질을 보증하는 가족의 이름이다. 또 그 이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 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다미아니의 신념이 담겨 있다. 그 때문에 1백 년이 넘는 역사와 가치를 바탕으로 정체성과 전통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었다.

SC 메종마다 각자 추구하는 이미지나 방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미아니가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다미아니 고객들은 저마다 다채로운 면모와 개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기분이 상황에 따라 어떤 컬렉션을 착용할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를 원할 때는 미모사 컬렉션을, 캐주얼한 자리에서는 벨 에포크 링 컬렉션을 착용한다. 옷차림에 현대적 감각을 더하고 싶다면 벨 에포크 컬렉션을,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할 때는 마르게리타 컬렉션을 선택한다. 즉 다미아니가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솔직하고 강인하며 자유롭게 자기 인식이 뚜렷한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

SC 다미아니를 방문했을 때 같은 크기와 양의 스톤이 쓰이고 동일한 가격임에도 훨씬 볼륨감이 있고 화려해 보이는 점이 신기했다. 이 역시 다미아니가 가족 기업이라 가능한 것일까? 물론이다. 다미아니의 모든 주얼리는 하이 주얼리부터 파인 주얼리까지 숙련된 장인들의 손길로 제작된다. 또 모든 제작 공정이 인하우스로 이뤄지며 디자인부터 소재 수급까지 모든 과정을 조르지오 다미아니가 직접 관리하고 승인한다. 그는 세계 각지의 저명한 원석 공급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 이는 다미아니의 가장 큰 강점이자 타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점이기도 하다.

SC 늘 제네바에서 워치스 & 윈더스 행사 기간에 다미아니 주얼리를 선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다미아니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제네바 워치스 & 윈더스 기간 중 열리는 오토 주얼(Haute Jewels) 전시는 세계 주얼리 브랜드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다. 전 세계 주요 파트너와 미디어가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컬렉션과 추후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다. 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럭셔리 주얼리 및 워치 리테일 체인, 로카는 다미아니 그룹에 속해 있다. 이 워치 박람회를 통해 로카는 주요 워치 브랜드 및 파트너들과 직접 만나고 각 브랜드의 신제품을 가장 먼저 접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로카에 있어 매우 특별한 해다. 스위스 독립 워치 브랜드 H. 모자렌씨(H. Moser & Cie.)와의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규모 글로벌 확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H. 모자렌씨는 한국에 첫 번째 부티크를 오픈할 예정이다.

SC 작년 다미아니는 탄생 100주년을 맞아 미모사 워치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외에도 다미아니에서의 워치 포지션을 더 넓혀갈 예정인지 궁금하다. 미모사 워치는 조형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에 스위스 장인들의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더해진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미모사 워치에 사용된 정밀한 쿼츠 무브먼트는 다미아니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스위스 워치메이커들의 손에서 완성되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주얼리 워치, 특히 아름다운 시크릿 워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그중 작년에 선보인 마르게리타 데저트 가든 시크릿 워치는 다미아니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컬렉션의 일환으로 제작된 유일무이한 작품이며, 스위스 제네바 시계 그랑프르(GPHG)에서 주얼리 부문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직 많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다미아니는 세계 분야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며, 곧 새 컬렉션도 선보일 예정이다.

SC 새로운 콘셉트의 부티크를 오픈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한다. 우리의 새로운 부티크는 고급스러운 이탈리아 가정집의 세련된 분위기에서 영감받아 밝고 편안한 환경에서 메종이 선보이는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 때문에 우리 부티크에는 이탈리아 디자인과 예술에 관한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을 배치했으며, 매장 내부에는 오직 최상의 이탈리아산 자재만 사용했다. 또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도 세심한 정성과 주의를 기울였다. 따뜻한 컬러 팔레트와 골드 컬러, 더불어 베이지와 브라운의 터치로 메종 특유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SC 이탈리아 주얼리 다미아니가 느끼는 한국 시장의 매력은 무엇일까? 한국 고객들은 세련된 취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문화와 스타일, 장인 정신에도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 이는 다미아니 브랜드와 주얼리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가치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다미아니는 한국을 서로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하반기에 다시 서울에서 여러분을 만날 예정이다. 앞으로 다미아니가 한국에서 선보일 새로운 여정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한다. 에디터 **성정민**(제네바 현지 취재)





사랑이란 이름의 워치 컬렉션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은 늘 그래왔듯, 올해 워치스 & 윈더스에서도 시간을 사랑과 예술로 해석한 시계를 선보이며 관람객을 매혹시켰다. 두 가문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된 이 메종은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장 서정적이고 시적으로 풀어낸다. 이번에도 역시 기술적 정교함과 예술적 비전이 만나며, 하나의 워치를 뛰어넘는, 이야기로 완성된 오브제가 탄생했다.

사랑의 이야기로 탄생한 메종과 포에틱 컴플리케이션 컬렉션

1895년 알프레드 반 클리프(Alfred Van Cleef)와 에스테ล 아펠(Estelle Arpels)의 결혼으로 시작되고 1906년 파리 방돔 광장 22번지에 자리 잡은 반클리프 아펠은 사랑, 행운, 자연이라는 주제로 창의적인 주얼리와 워치를 제작해왔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컴플리케이션 워치 작품들을 탄생시키며 메종이 추구하는 고유한 서정적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이 작품들은 메커니즘의 전문성과 고귀한 소재, 그리고 예술적 기교의 만남을 아우르며 다이얼마다 살아 숨 쉬는 이야기를 표현한다. 2010년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Grand Prix de Genève)의 포에틱 컴플리케이션 부문에서 최초로 영예로운 수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퐁 데 자모르 워치(Pont de Amoureux)는 올해 네 가지 새로운 모델을 더하며 하나의 컬렉션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컬렉션은 파리의 다리에서 사랑을 나누며 하나가 된 남녀의 이야기를 표현한다. 더블 레

트로그레이드 무브먼트가 시간과 분을 표시하며 알려주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연인은 정오와 자정에 입맞춤을 향해 서로에게 나아간다. 이 작품의 매혹적인 장식은 그리자유 에나멜 기법을 적용해 생명력을 불어넣고,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로 수채화를 그려내듯 표현했다. 다리 실루엣은 원근감이 더욱더 돋보이도록 골드 소재에 정교한 조각을 새겨 완성했다. 전체를 다이아몬드 세팅 및 사파이어 그라데이션을 더한 주얼리로 장식한 브레이슬릿과 함께 제공하며 오브(Aube) 및 수아레(Soirée) 모델은 옅은 핑크 사파이어 또는 강렬한 핑크 사파이어를 세팅했다. 또 마티네(Matinée) 및 클레르 드 룬(Claire de Lune) 모델은 옅은 블루 또는 짙은 블루 사파이어로 오묘한 그라데이션을 그려낸다. 더불어 반클리프 아펠은 올해 특별한 워치를 추가했다. 레이디 아펠 발 데 자모르 오토메이트(Lady Arpels Bal des Amoureux Automate) 워치로 새롭게 선보이는 장식을 도입해 커플의 만

“
메종 설립의 기반이 된 사랑 이야기를 기념하는 것은 정말 멋진고도 당연한 일이며 사랑은 꾸준히 메종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왔다”
by CEO 캐서린 레나에



남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풍경을 그려낸다. 이 풍경은 19세기에 사랑받았던 파리 교외 지역의 야외 댄스 카페인 쟁게트의 분위기와 매혹을 새롭게 해석한 모습이다. 오토마통 무브먼트는 오후와 자정에 연인들을 가까이 마주하게 해 입맞춤의 순간을 이뤄낸다. 이 워치를 위해 메종은 새로운 오토마통 무브먼트를 탄생시켰다. 덕분에 두 커플이 자연스럽게 다가가거나 기울어지는 동작을 볼 수 있다. 더불어 그리자유 에나멜 기법으로 만든 별빛 가득한 밤하늘, 축제 분위기로 빛나는 생생한 파리 거리의 모습 등은 반클리프 아펠 장인들만의 섬세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여준다.

마법같이 경이로운 미학의 세계, 엑스트라오디네리 오브제

시간의 흐름을 조형 예술로 승화한 엑스트라오디네리 오브제(Extraordinary Objects) 컬렉션은 반클리프 아펠의 궁극적 미학을 담고 있다. 올해 선보인 두 오토마통 작품은 상징적인 정수를 보여준다. 사랑의 신 큐피드가 깃털 바구니에서 솟아오르는 장면을 묘사한 네상스 드 라무르 오토마통(Naissance de l'Amour Automaton)은 플리크-아-주르 에나멜 날개를 퍼덕이며 부드러운 카리용 선율과 함께 솟아오른다. 로즈 골드, 화이트 골드, 다양한 핑크 사파이어로 구현된 큐피드는 철화석과 야자나무 뿌리 화석으로 이루어진 보드 위에서 등장하며, 회전 링과 다이아몬드가 시간을 표시한다. 반면 메종이 재해석한 화려한 천체와 신비로운 우주를 표현한 플라네타리움 오토마통(Planétarium Automaton)은 높이 50cm, 지름 66.5cm의 대형 오토마통으로, 태양계의 행성들이 각자의 공전주기에 따라 움직이는 정교한 기계 미학을 보여준다. 다이얼 중앙의 미스터리 세팅 루비로 구현된 별뿔별이 시간을 알리며, 별들이 무용수처럼 원형 궤도를 따라 회전한다. 태양은 5백 개의 골드 스텝, 각 행성은 사파이어, 잭스톤, 몬스톤 등으로 표현되며, 트램블러 효과로 진동을 더해 빛의 향연을 이룬다.

하이 주얼리 워치의 정수, 까데나 & 루방 미스터리유

1935년 처음 공개된 까데나(Cadenas) 워치는 자물쇠 형태의 손잡이와 유려한 더블 스페이크 체인이 특징이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에디션은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과 프린세스 컷 사파이어, 스노 세팅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룬다. 기울어진 다이얼은 은밀하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1930년대 레디메이트 미학과 여성의 삶을 담아낸 반클리프 아펠의 상징적 작품이다. 쿠튀르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루방 미스터리유(Ruban Mystérieux) 워치는 3.72캐럿 오벌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스노 세팅 다이아몬드, 미스터리 세팅 사파이어와 에메랄드가 조화를 이루며 손목 위를 감싼다. 미스터리 세팅은 1933년 반클리프 아펠이 특허 받은 기법으로 보석만으로 이뤄진 듯한 광채를 선사한다. 시간을 보는 물건이라는 시계의 정의를 다시 쓰는 반클리프 아펠은 이번 워치스 & 윈더스에서 역시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바탕으로 감성과 예술을 덧입힌 경이로운 워치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들은 단지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시를 쓰고, 예술을 완성하는 오브제임에 틀림없다. 반클리프 아펠의 시계는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경험으로 만들어낸다. 문의 1877-4128



INTERVIEW with Catherine Rénier(CEO)

2024년 반클리프 아펠의 새로운 회장 겸 CEO로 임명된 그녀는 메종 특유의 우아한 에티튜드와 미소로 에디터를 맞이하며 이번 메종의 테마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반클리프 아펠만이 표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세계관을 들려주었다.

스타일 조선훈(이하 SC) 2018년부터 작년까지 예거 르쿨트르에서의 경험을 거쳐 다시 반클리프 아펠로 돌아온 소감이 어떠한가? 매우 기쁘다. 그동안 나의 커리어를 봤을 때 반클리프 아펠에서 15년간 함께 하며 팀과 메종의 세계관과 스토리를 구축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다. 여러 이니셔티브도 론칭했는데, 다시 돌아오니 더 커진 스케일에 놀랐다. 그중 하나가 2012년 시작된 레콜 주얼리 스쿨(L'École School of Jewelry Arts)이다. 내가 홍콩에 있었을 때 아시아에서 처음 선보였다. 현재는 전 세계 4개의 캠퍼스로 확장되었다. 그간 이 모든 것들이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 메종이 아이덴티티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훌륭한 여정을 거치면서 패트리모니(Patrimony)와 고객을 향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SC 주요 워치메이킹 메종은 새로운 기술력, 소재 등 워치메이킹 노하우에 집중하고 있다. 반클리프 아펠은 워치를 향해 다소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 메종의 독특함과 강점은 무엇인가? 반클리프 아펠은 타 워치 메종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워치메이킹을 바라보고 있다. 메종의 기술·혁신·워치메이킹에 대한 전문성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스토리와 디자인을 위해 활용한다. 즉 타 메종과는 다르게 테마와 주제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무브먼트와 기술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올해는 러브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Lover's Ball(연인의 무도회)'이라는 주제를 떠올렸다. 두 연인이 다리 위에서 키스를 하고 파리의 거리에서 춤을 춘다. 특히 이 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4년간의 무브먼트 개발 기간이 필요했고, 오토마통 무브먼트를 위해 무려 3개의 특허를 취득했다. 이렇듯 반클리프 아펠에는 항상 서정적인 스토리가 최우선적 고려 대상이며, 메종의 유니버스를 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은 그다음이다.

SC 지금 언급한 것과 같이 작년에 자연, 동화, 요정 등의 스토리와 달리 올해 '사랑'이라는 테마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반클리프 아펠은 알프레드 반 클리프와 에스테ล 아펠의 러브 스토리로 시작되었다. 메종 창립의 기반이 된 사랑 이야기를 기념하는 것은 정말 멋진고도 당연한 일이며, 사랑은 꾸준히 메종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왔다. 아울러 우리 헤리티지 중 처음 기록된 주얼리 피스가 바로 하트 컷 다이아몬드였다. 사랑은 단지 우리 메

이 탄생한 순간에만 있던 것이 아닌 모든 주얼리와 워치뿐 아니라 다른 제품이나 창작물의 크리에이티브 관점에서도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 되어준다. 이번 워치스 & 윈더스에서는 '사랑'뿐 아니라 '파리'에도 경의를 표했다. 부스에서 볼 수 있는 무대 같은 파리의 거리, 아름답고 작은 공원과 벤치 같은 것들은 매우 '파리다운' 것이다. 이는 반클리프 아펠이 1906년 파리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올해 선보인 워치들은 모두 메종의 기원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SC '사랑'과 '파리', 두 단어의 조합만 들어도 매우 로맨틱하다. 당신에게 두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흥미로운 질문이다. 나에게 사랑은 관심과 보살핌, 열정, 그리고 베푸는 마음이라 생각한다. 두 사람 간의 만남도 있지만 아이들을 향한 엄마의 모성애도 사랑의 일부다. 여러 형태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결국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리는 대표적인 '사랑'의 도시다. 나에게 파리는 풍부한 유산, 문화, 건축, 그리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도시이며 늘 거닐고 싶은 곳이다.

SC 올해 워치스 & 윈더스 신제품에 적용된 스토리텔링 외에 기술적 혁신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 하나는 포에틱 컴플리케이션처럼 좀 더 전통적인 형태다. 그리자유 에나멜링을 통한 다이얼과 아름다운 에나멜이션을 담았고, 엑스트라오디네리 오브제와 같이 다채로운 컬러를 보여준다. 래커, 인그레이빙 같은 요소를 통해 반클리프 아펠이기에 가능한 표현의 풍요로움을 엿볼 수 있다. 또 올해 주요 혁신 중 하나는 레이디 아펠 발 데 자모르 오토메이트 워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무브먼트의 개발이 필요했고 구체적인 다이얼 속 연인들이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세 가지 혁신적인 특허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마치 자갈 바닥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데 기술적 요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SC 까데나 워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는 여성 워치 시장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시대의 흐름을 읽은 것인가? 1935년 탄생한 까데나 워치의 아름다움은 타임리스한 워치 디자인 중 하나로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시간의 초월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까데나 워치의 클래스프(clasp) 시그니처는 독보적이고 유니크하다. 여기에 현대 주얼리 피스들과의 조화, 스노 세팅, 그리고 착용자를 향하며 신중하게 숨겨진 다이얼 등 여러 미학적 코드가 결합되어 더욱 특별하다. 그 때문에 까데나를 정기적으로 재조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무다. 즉 우리는 여성 워치 시장에 대한 공력을 위해 이 워치를 출시했다기보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에디터 성영민(제네바 현지 취재)



GRAND COMPLICATIONS

Watches & Wonders | PATEK PHILIPPE

올해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혁신과 기술력을 더한 최상의 신제품을 내놓은 매종이 다수를 이뤘다. 그중 하나가 파텍필립이다. 많은 이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워치메이커로 1839년 창립 이래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요하는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선보이며 진정한 시계 애호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 이름은 바로 쿼드러플 컴플리케이션 Ref. 5308G-001. 2023년 도쿄에서 열린 파텍필립의 시계예술대전(Watch Art Grand Exhibition)에서 플래티넘 케이스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세계 최초로 선보였던 타임피스를 정규 모델로 출시하는 것. 파텍필립은 이번 신제품에서 미닛 리피터, 크로노그래프, 퍼페추얼 캘린더를 모두 담은 전작에 스플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까지 추가해 더 업그레이드했다. 다이얼은 아이스 블루 컬러의 선버스트로 마감해 시원한 느낌을 주고 지름 42mm, 두께 17.71mm 케이스는 화이트 골드로 우아하게 완성했다. 애플리케 인덱스 및 핸즈는 다크 블루 컬러를 입혀 고급스러운 톤온톤의 선명한 대비 효과를 부여했다. 세 가지 다른 창으로 요일, 날짜, 월을 나란히 표시하며 윤년과 낮·밤을 표시하는 인디케이션을 3시와 9시 방향 카운터에 통합하고, 6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즈와 함께 클래식한 문페이스 디스플레이를 배치했다. 해당 캘린더 기능은 정교한 부품과 맞물려 즉각적으로 디스크가 넘어가는 이른바 인스턴트 퍼페추얼 캘린더(instantaneous perpetual calendar)로 작동한다. 각 디스크는 자정 무렵 약 0.03초 만에 즉시 변경되는 장점이 있다. 이는 전작에서부터 선보인 아이코닉한 기능적 요소다.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새로운 칼리버 R CH-R 27 PS Q를 탑재했다는 것. 성능 최적화뿐 아니라 스플릿 세컨즈 메커니즘과 관련된 두 가지 기술 특허를 받아 특히 더 주목받고 있다. 무브먼트는 2개의 클래식 공과 해머 세트를 갖추어 차이밍 메커니즘을 구현하며 케이스 좌측 면의 슬라이딩 레버를 조작해 미닛 리피터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파텍필립은 컴플리케이션, 노틸러스, 아쿠아넛, 칼라트라바, 지난해 성공적으로 론칭한 큐비투스과 최초 퍼페추얼 캘린더를 적용해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을 애호하는 여성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트윈터~포까지. 주요 컬렉션마다 골고루 신제품을 추가했으며, 퍼페추얼 캘린더와 위클리 캘린더 기능을 갖춘 31일 파워 리저브의 탁상시계를 선보이며 작년과 다른 존재감을 과시했다. 문의 02-6905-3339

쿼드러플 컴플리케이션
Ref. 5308G-001

Watches & Wonders

VACHERON CONSTANTIN

올해 매종 창립 270주년을 맞이한 바세른 콘스탄틴 매종은 무려 8년의 연구 및 개발 끝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컴플리케이션을 지닌 손목시계를 완성한다. 무려 41개의 컴플리케이션이 담긴 캐비노티에 솔라리아 울트라 컴플리케이션 라 프리미에다. 이 타임피스가 혁신적인 이유는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타 워치메이킹 매종에서 한 번도 함께 결합한 적 없는 다섯 가지 천문학적 기능을 통합했다는 점에 있다. 먼저 핵심 요소인 무브먼트 칼리버 3655는 각각에 특화된 기어트레인을 사용해 상용시, 태양시, 항성시 등 세 가지 시간을 다이얼 하나에 표시되도록 한다. 특히 태양시를 구현하기 위한 트로피컬 기어와 군시자 인디케이터는 지구의 공전제도와 자전축 기울기를 반영한 복잡한 천문 계산을 바탕으로 해 놀라움을 선사한다. 여기에 태양의 위치, 높이, 남중, 적위까지 회전하는 사파이어 디스크와 카운터 핸드로 확인 가능하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 최초로 적용된 시기에 따른 천체 추적 기능이다. 스플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에 천구를 결합해 하나의 별자리 또는 특정한 별이 관측자의 시야 중앙에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며, 사파이어 크리스탈 디스크로 천구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퍼페추얼 캘린더 및 문페이스 기능은 물론 조수 측정, GMT 및 월드 타임 표시, 그리고 이번에 출원된 총 13건의 특허 중 7건을 차지한 웨스트민스터 미닛 리피터 등 수많은 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워치에 담았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것을 지름 45mm, 두께 14.99mm라는 손목에 올리기 위한 사이즈의 케이스에 집약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바세른 콘스탄틴은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기술적 위업을 또 한번 달성했다. 문의 1877-4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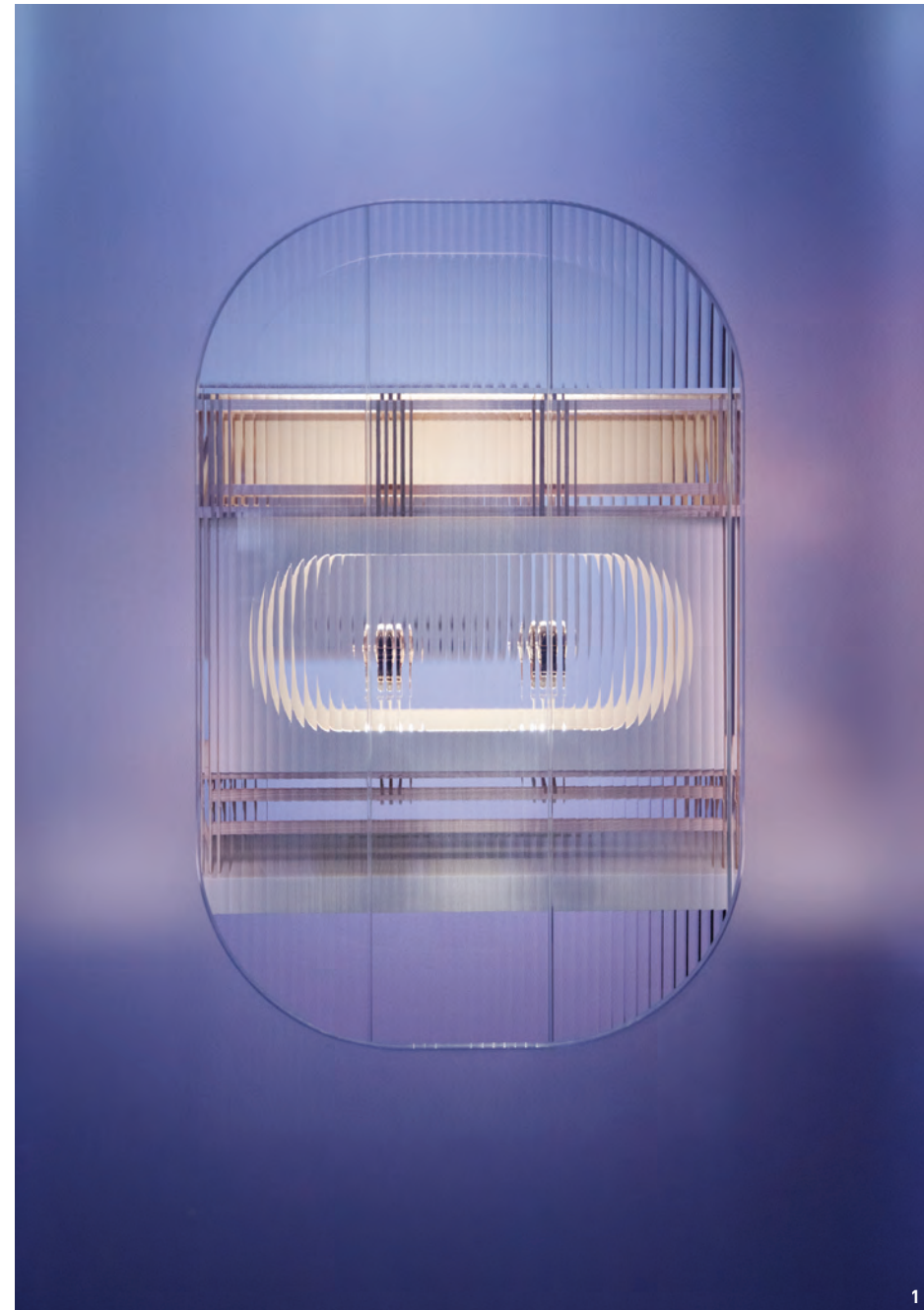
캐비노티에 솔라리아
울트라 컴플리케이션
라 프리미에

Watches & Wonders

HERMÈS

Time Suspended

시계는 기계지만, 시간은 시적인 마음이다. 우리는 작은 창으로 밖을 조용히 바라보는 관찰자일 수도 있고, 창 너머 스쳐가는 찰나의 순간을 붙잡는 여행자일 수도 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공간에서 새로운 에르메스 시계를 만났다.



1 올해 에르메스 부스는 시간이 희미해지고 재창조되는 '잠시 멈춤의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비주열 아티스트 사라~아나이스 데브누아(Sarah-Anais Desbenoit)와 협업했다. 2 폴라싱 처리한 750 화이트 골드 소재로 이루어진 세미 리지드(semi-rigid) 구조의 브레이슬릿 워치로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그리고 각 약 0.9캐럿 다이아몬드 4개의 센터 스톤을 세팅한 마이용 리브르 워치. 3 다양한 착용 방식으로 시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난 마이용 리브르 브로치 워치의 매트 블랙 옹크스 다이얼 버전. 4 지름 42mm 케이스에 오픈워크 다이얼로 완성한 아소 르 땅 서스펜디. 5 에르메스 컷 르 땅 서스펜디 중 시즌 한정 제품으로 선버스트 레드 다이얼을 매치한 로즈 골드 버전.

아소 르 땅 서스펜디

말 등지에서 영감받아 만든 케이스와 비데칭 러그가 특징인 아소 컬렉션. 올해는 케이스 지름 42mm에 인하우스 무브먼트 H1837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워크 다이얼을 결합했다. 9시 방향 푸시 버튼을 눌러 모듈을 작동시키면 시·분침이 12시 방향으로 모이고, 날짜 포인터가 사라진다. 화이트 골드 케이스는 모래 컬러의 브랭 데저트(brun desert), 자줏빛 루즈 셀리에(rouge sellier) 다이얼과 로즈 골드 케이스는 선버스트 블루(bleu) 컬러 다이얼과 조화를 이룬다.

에르메스 컷 르 땅 서스펜디

작년에 론칭한 이 컬렉션은 완벽하지 않은 원형 케이스가 특징. 역시 버튼을 누르면 시·분침이 12시 방향에서 멈춘다. 재미있는 것은 4시 방향의 초침. 24초마다 1회전 하며, 정방향이나 역방향으로 회전한다. 또 버튼을 눌러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서 회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팔린 살베 다이얼에 로즈 골드 케이스를 매치한 버전과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그리고 선버스트 레드 다이얼 버전 등 총 세 가지로 선보인다. 케이스 지름은 39mm, 무브먼트는 H1912를 탑재했다.

마이용 리브르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센 당크르 체인 모터브를 활용한 마이용 리브르 컬렉션도 선보였다. 브로치 위치는 가장 오래된 남성용 액세서리 중 하나. 단독으로 브로치로 착용할 수도 있고, 가죽 스트랩을 활용해 펜던트로도 스타일링할 수 있다. 브레이슬릿 위치는 다이아몬드 또는 테라코타 투르말린을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문의 02-542-6622 글 장려운

2011년 탄생한 르 땅 서스펜디(Le Temps Suspendu)는 에르메스가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기능적으로 구현한 첫 번째 프로젝트다. '멈춘 시간의 미학'을 강조해 시간을 정지시키는(숨기는) 것인데, 실제로는 무브먼트가 작동하며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푸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현재 시간으로 돌아온다. 올해 4월에 열린 워치스 & 윈터스 2025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타임피스에 이 비전을 접목했다. 아소 르 땅 서스펜디와 에르메스 컷 르 땅 서스펜디가 그 주인공. 그리고 새로 선보이는 마이용 리브르도 만나보자.



KEYWORD 2

MOTOR RACING DNA

포뮬러 1 솔라그래프



까레라 데이-데이트



Watches & Wonders

TAG HEUER

타입키링 기술에 뛰어난 노하우를 지닌 태그호이어가 약 30년 만에 포뮬러 1® 공식 타임키퍼로 돌아온다. 이를 기념해 태그호이어라는 이름을 갖게 된 1986년 첫선을 보인 포뮬러 1 컬렉션을 신제품으로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은 레이싱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에 역동적인 감각을 더해 아홉 가지 모델로 구성했다. 그중 세 가지는 코어 컬렉션으로 블랙 & 화이트 다이얼, 스틸 브레이슬릿을 갖춘 덤블루, 대담한 레드로 전개된다. 각 타임피스는 1986년 출시된 오리지널 컬렉션의 유산을 계승하며 핵심 요소를 그대로 담아 컬렉터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각 소재와 컬러에 따라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모두 칼리버 TH50-00으로 구동한다. 모터 스포츠의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탄생한 까레라 컬렉션 역시 여섯 가지 새로운 모델로 선보인다. 까레라 데이-데이트는 아이코닉한 실루엣과 다이얼 컬러를 강조하면서도 세밀한 디테일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다. 더욱 커지고 간격이 넓어진 인덱스가 가독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련된 외관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최신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재실계한 브레이슬릿과 스트랩으로 착용감을 개선한 점이 돋보인다. 메가 매뉴팩처 셀리타(Sellita)의 자회사면서 보다 고급 지향의 무브먼트를 개발하는 스페셜리스트 AMT와 태그호이어가 공동 개발한 새로운 독점 자동 칼리버 TH31-02를 장착했다. 문의 02-3479-6021

KEYWORD 3

SMALL BUT SPECIAL

다이아몬드
주얼리 워치



Watches & Wonders

CARTIER

까르띠에를 대표하는 '산토스 드 까르띠에' 라인에 스몰 사이즈를 추가해 완벽한 라인업을 완성했다. 골드 & 스틸, 스틸, 골드 등 다양하게 선보이는 이 새로운 스몰 모델은 라지 모델과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선레이 다이얼을 장착한 작은 케이스(27x34.5mm)와 고성능 쿼츠 무브먼트로 작지만 강한 변화를 꾀했다. 옐로 골드 베젤로 포인트를 준 산토스 드 스몰 워치를 가장 주목해볼 것. 문의 1877-4326

산토스 드 까르띠에 스몰

Watches & Wonders

CHOPARD

케이스의 사이즈를 다운시켜 더 작고 소중해진 쇼파드 '다이아몬드 컬렉션'의 주얼리 워치. 지름 26mm의 원형 케이스에 자개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베젤을 더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배가했다. 특히 나무감질을 표현한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에서 극도로 세밀한 세공 기법을 엿볼 수 있다. 이외에 타원형, 쿼스형, 팔각형, 하트 셰이프 등 다양한 케이스로 출시된다. 문의 02-2118-6085

KEYWORD 4

BACK TO CLASSICS

Watches & Wonders

IWC

2013년부터 F1® 팀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Mercedes-AMG PETRONAS)의 엔지니어링 파트너로 협력해온 IWC 역시 모터 레이싱 DNA를 지닌 워치 브랜드로서의 자각이 충분하다. 올해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애플 오리지널 필름(F1)에 스폰서로 참여하기도 했다. IWC는 이 영화에서 촬영용 워치 제작뿐 아니라 이로부터 영감을 받은 신제품들을 이번 워치스 & 원더스에서 선보였다. 특히 영화 속 가상의 레이싱 팀 APXGP에서 영감을 받은 3종의 파일럿 크로노그래프 워치가 대표적. 맨스 이드리스가 연기한 조슈아 피어스가 착용한 파일럿 워치 퍼포먼스 크로노그래프 41(Ref. IW388309)부터 지름 43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버전의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APXGP(Ref. IW378009)와 41mm 케이스의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41 APXGP(Ref. IW388116)다. 두 모델 모두 영화 속 APXGP 팀에 한정하는 시계로 케이스 백에 골드 컬러로 프린트한 APXGP 팀 로고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영화 주인공이 착용한 제작 워치로부터 영감을 받은 인제니에르 오토매틱 40(Ref. IW328908) 역시 1천 피스 한정 수량으로 선보였다. 문의 1877-4315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41 APXGP

Watches & Wonders

ROLEX

퍼페추얼 로터를 적용한 최초의 롤렉스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1908' 워치는 지름 39mm의 케이스에 교차로 장식한 아라비아숫자와 각면 처리한 인덱스, 무브먼트의 세밀한 디자인과 로터의 회전을 감상할 수 있는 투명한 케이스 백이 큰 특징이다. 수심 50m까지 방수 가능한 케이스는 내부에 장착된 무브먼트를 최적의 상태로 보호해준다. 문의 02-6370-4298

브랜드의 유산을 짧고 강렬하게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는 과거의 미학적 코드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랑에 운트 쾨네의 '1815' 워치는 기차 선로 형태의 미닛 스케일, 아라비아숫자, 6시 방향에 위치한 서브 세컨즈 다이얼 등에서 브랜드의 초기 포켓 워치를 연상시킨다. 제품명은 브랜드 창립자 페르디난드 아돌프 랑에(Ferdinand Adolph Lange)의 출생 연도에서 따왔으며 지름 34mm, 두께는 6.4mm로 화이트, 핑크 골드, 총 두 가지로 출시된다. 문의 02-3479-1349

Watches & Wonders

A. LANGE & SÖHNE



1815 컬렉션 750
핑크 골드



1908 옐로 골드

KEYWORD 5

LIKE JEWEL

Watches & Wonders

VAN CLEEF & ARPELS



루방 미스테리유

올해 트렌드 중 하나인 주얼 워치. '루방 미스테리유(Ruban Mystérieux)' 워치는 다이얼 위 3.72캐럿의 오벌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에메랄드로 리본을 형상화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담은 젤스톤 장식을 통해 반클리프 아펠만의 장인 정신과 기술력을 단번에 확인시켜준다. 문의 02-1877-4128



식스티
G0A50304

Watches & Wonders

PIAGET

새로운 세이프모던 주얼 워치의 의미를 정립한 피아제 '식스티(Sixtié)' 컬렉션. 사다리꼴의 독특한 케이스에 정교하게 장식한 다이아몬드 베젤과 가드룬 장식, 간결한 로마숫자 인덱스와 바톤 핸즈 등을 더했다. 1960년대 말 메종의 유산을 기념해 탄생한 만큼 당시 피아제를 상징하는 디테일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 02-3449-5934



세르펜티
에테르나

Watches & Wonders

BVLGARI

이번 시즌 불가리의 아이코닉한 워치, 세르펜티가 대담한 진화를 감행했다. 상징과도 같은 뱀의 눈과 비늘 등을 과감히 배제하고 오로지 금빛 실루엣으로 뱀의 형상을 간결하고 힘 있게 표현한 것. 나선형 뱀을 디자인에 크고 작은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그 어느 때보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감성을 잘 표현한다. 영속성, 유연함, 정교함 등이 어우러져 완벽한 작품과도 같다. 문의 02-3438-6006

KEYWORD 6

ARTISTIC DIAL

Watches & Wonders

H. MOSER & CIE.

인테버 투르비용
터콰이즈 에나멜

무한한 상상력을 다이얼에 구현한다면? 대담한 컬러매치, 래커 마감, 인그레이빙 등 고도로 숙련된 장인의 터치로 완성한 예술적 면모의 워치를 만나볼 시간이다. H. 모저앤씨의 '인테버 투르비용 터콰이즈 에나멜' 워치는 블루빛 터콰이즈 에나멜 다이얼, 과감히 삭제한 인덱스와 브랜드 로고, 나뭇잎을 형상화한 핸즈, 마지막으로 그레이 오스트리치 리더 스트랩을 더해 대담한 미니멀리즘의 미학을 엿볼 수 있다. 다이얼 위에 드러난 스켈레톤 구조의 레드 골드 로터는 와인딩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전체 무브먼트의 조형미까지 살린다. 문의 02-6905-3363



리베르소 트리뷰트
노난티엠 에나멜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노난티엠 에나멜'의 진면목은 화려하는 케이스를 뒤집음으로써 명확하게 드러난다.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하늘을 표현한 케이스 백 위로 교차된 두 표시창은 케이스 상·하단 케이스에 장식된 가드룬과 조화를 이룬다. 짙은 블루 컬러로 래커 처리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와 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워치 중앙의 작은 원 안에 장식된 태양과 달은 낮과 밤을 나타낸다. 10피스 한정판, 문의 02-6905-3998

Watches & Wonders

JAEGER-LECOULTRE

KEYWORD 7

NAME OF BLUE

Watches & Wonders

TUDOR

올해 워치스 & 원더스 트렌드 컬러는 '블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메종에서 블루 컬러를 자신만의 색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중 튜더도 한 포자션을 차지했다. 이번에 튜더는 지름 43mm의 완전히 새로운 블랙 베이 모델을 선보이며 컬렉션을 확장했다. 컬러 장인이라 불릴 정도로 선명한 컬러를 구현하는 튜더가 선택한 다이얼 컬러는 블루와 화이트, 두 컬러 모두에 적용한 블랙 베이만의 아이코닉한 디자인 디테일은 더 커진 케이스와 가독성으로 빛을 발한다. 한 방향 회전 베젤과 인서트에 새겨진 숫자, 초기 다이버 워치의 디자인을 반영한 롤리팝 형태의 초침과 시선을 사로잡는 인덱스까지. 여기에 오리지널 모델의 비율은 유지하면서 더 얇아진 케이스, 새롭게 디자인한 크라운과 매끄러운 측면을 갖춘 새턴-브러시드 3열 링크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으로 업그레이드했으며, 간편하게 교체 가능한 T-FIT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번 블랙 베이 출시와 함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위해 또 하나의 블랙 베이 모델을 통과해 기쁨을 더했다. 자체 제작 칼리버 MT5601-U로 작동한다. 문의 02-517-3568



블랙 베이 68



루미노르 마리나



Watches & Wonders

PANERAI

올해도 역시 파넬라이는 이탈리아 해군에서 시작된 그들의 유산을 가득 담은 루미노르 컬렉션을 더욱 확장시켰다. 새로운 디테일과 기술적인 요소로 업그레이드한 것은 물론이다. 새로운 모델은 메종의 이름과 컬렉션 명인 루미노르 마리나(Luminor Marina)만을 표기한 미니멀한 다이얼 디자인이 특징이다. 또 이번 컬렉션의 핵심은 파넬라이의 아이코닉한 기술적인 슈퍼-루미노바® X2를 적용했다는 것. 더 밝고 선명해진 야광으로 저조도 환경에서도 탁월한 가독성을 보장한다. 새로운 루미노르 마리나 시리즈에는 P.980 칼리버를 장착했다. 칼리버의 슬림한 비율(12½ 라뉴) 덕분에 케이스 두께와 무게가 줄어 착용감 또한 한층 개선되었다. 그중 파넬라이의 상징과도 같은 컬러인 블루 선 브러시드 다이얼을 적용한 루미노르 마리나 스틸 모델은 빼놓을 수 없는 타임피스다. 지름 44mm 케이스로 제공되며 파넬라이의 프리미엄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해 강도와 부식 저항성이 뛰어나며, 저탄소 변형 합금으로 더욱 향상된 내구성을 제공한다. 문의 02-1670-1936 에디터 정성민, 김하얀



루프 프린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엮어 완성한
비스코스 소재 레이스백
톱 가격 미정 톱 포드
문의 02-6905-3640



총 20cm 길이의
송아지가죽 프린지로
세심하게 장식한 피카부
소프트 미디엄 백 8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14-0652

The Swinging

흔들리지 않아도 좋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프린지 아이템의 형태적
존재감.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크고 작은 볼 스타드와
유려한 스웨이드 프린지
조합이 예스닉한 분위기를
전하는 벨코트 백 3백40
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문의 02-2015-4655.
블랙 & 브라운의 타이거
프린트가 존재감을 더하는
송치 소재 버킷 백 가격
미정 지안비토 로시.
문의 02-6905-3690
에디터 김하얀



두 가지 다른 모양의
프린지가 특징인 마젠타
컬러의 양가죽 소재 트릭 참
60만원대 미우미우. 문의
080-522-7198. 의도적으로
풀어헤친 패브릭이 프린지를
연상시키는 포인티드 에바 물
가격 미정 페라가모. 문의
02-3430-7854. 가늘고
긴 하늘색 스웨이드 프린지로
장식한 태슬 참 가격 미정
맥퀼. 문의 02-6105-2226

Everlasting Shine

위에서 바라보니 더욱 분명해진다. 포멜라토 누도 컬렉션의 광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젤스톤을 고정하는 프롱을 과감히 생략하고 57면의 비규칙적 커팅을 선택해 브랜드의 혁신과 고유성이 또렷이 드러난다. 지난 4월 포멜라토가 서울 성수에서 누도 컬렉션의 '하이 주얼리'와 신제품 '미니 누도' 라인의 공개를 알렸고, 이를 기념해 행사바로 하루 전날 한국을 찾은 포멜라토 CMO 보리스 바르보니(Boris Barboni)를 만나 일문일답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고객을 동반자 또는 친구라 칭하며 포멜라토 하이 주얼리가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들기를 희망한다. 정교한 장인 정신과 구조적 조형미, 젤스톤의 무한한 가치, 브랜드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이어진 그날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한다.



다. 포멜라토 창립자 피노 라볼리니(Pino Rabolini)는 당시 건축가, 디자이너, 기업의 중역으로 활동하던 여성들을 위해 일상에서도 착용 가능한 모던한 주얼리를 디자인했다. 전통적인 주얼리 디자인에서 벗어난 이 혁신적인 스타일은 지금 포멜라토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준 초석이 됐다. 두 번째는 장인 정신. 포멜라토 주얼리는 기계 공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장인의 손에 서만 탄생한다. 수작업이 아니면 탄생할 수 없는 곡선 실루엣이 바로 그 증거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다. 내가 고객을 친구라고 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능과 창의성, 자성인과의 만남은 영감의 원천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시작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케이스다.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며 젤스톤의 화려한 미감을 탐구하고 주얼리에 고스란히 구현하고 있다. 이런 태도와 성장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겠다.

포멜라토가 생각하는 하이 주얼리란, 하이 주얼리가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길 바란다. 우리는 원석 자체의 광채와 유려한 디자인을 강조하고 다채로운 착용법을 제안함으로써 웨어러블한 하이 주얼리 신을 새로이 개척하고 있다. 1990년대 하이 주얼리의 주목적은 본인 만족과 투자, 사교 모임이었다. 포멜라토는 사치와 동일시되던 하이 주얼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일종의 이단아 같다고 할까. 물론 보석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고귀하다. 하지만 하이 주얼리를 구매하는 고객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빅 이벤트를 고대하기보다 매일 주얼리의 무한한 광채를 온전히 누리길 바란다. 포멜라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빈센초 카스탈도(Vincenzo Castaldo) 역시 이 부분을 늘 강조한다.

누도 컬렉션의 관전 포인트는? 위에서 바라볼 때 주얼리가 부유하는 듯한 느낌, 바로 그것이다. 보통 주얼리는 58면으로 깎지만 누도 컬렉션의 스톤은 비정형적으로 깎은 57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일반적으 프롱이 스톤을 단단히 고정하지만 하단 부분을 과감하게 직선으로 커팅해 젤스톤만의 입체적인 볼륨을 강조했다. 그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바라봐도 투명하고 깨끗한 반짝임을 자랑한다. 포멜라토이기에 가능한 고유 기술이며 스톤의 광택과 빛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장인 정신과 완성적인 컬러 매치를 빼놓을 수 없다. 매일 팝업 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양한 컬러 스펙트럼은 자유로운 믹스 매치를 가능케 하고, 각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완벽한 수단이 된다. 특히 세 가지 이상의 누도 링을 함께 레이어드할 때 또 다른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

입체적인 곡선적 '스퀘어' 셰이프를 생각하면 시작점이 궁금하다. 라운드 볼륨의 이코노미가, 두 영혼을 뜻하는 투게더, 그리고 품문닷컴 등 포멜라토의 디자인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귀결된다. 누도 컬렉션 역시 유연



1 포멜라토 CMO 보리스 바르보니(Boris Barboni). 2 로즈 골드에 총 72캐럿의 스카이블루 토파즈 2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조합해 장식한 누도 미니 브레이슬릿. 3 레몬 쿼츠, 런던 블루 토파즈 등 다양한 스톤의 누도 링을 레이어드할 때 누도 컬렉션의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4 성수 팝업 행사장. 5 10.5캐럿의 루벨라이트 펜던트와 체인 링크에 일정한 간격으로 총 2.55캐럿의 다이아몬드 2백38개를 세팅한 로즈 골드 누도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6 스카이블루 토파즈를 세팅한 기본 사이즈의 누도 네크리스와 이번 시즌 새롭게 사이즈를 다룬 시계 완성한 런던 블루 토파즈의 '미니 누도 네크리스'는 극명한 사이즈 차이를 이룬다.



한 실루엣이 핵심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60~70년대 에 선보인 포멜라토의 빈티지 체인을 예를 들 수 있는데, 당시 수작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공정을 곡선형으로 선택했다고. 수많은 곡선은 독창적인 조형미를 만들고 이는 포멜라토의 긍정성을 표방한다. 포멜라토 로고 역시 각진 곳 하나 없이 곡선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주얼리를 통해 즐거움, 긍정적인 마인드를 전하고 싶다.

이번 시즌, 새로 공개한 블루 컬러의 '미니 누도' 컬렉션에 눈길이 가더라. 누도 컬렉션은 탄자나이트, 화이트 토파즈, 루벨라이트 등 총 아홉 가지의 컬러 셰이드를 갖추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스카이블루와 런던 블루 토파즈를 미니 누도 디자인에 녹여냈다. 종전의 제품보다 더 섬세하게 다운사이징된 덕에 포멜라토의 다른 주얼리와 레이어드하기 좋다. 펜던트, 브링, 이어링으로 출시했으며, 다른 누도 라인과 동일하게 유연한 구조와 스퀘어 젤스톤이 특징이다. 물론 스톤은 스카이블루 토파즈 또는 런던 블루 토파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 조선평보) 독자에게 전할 말이 있다. 내일 오픈하는 팝업 행사로 누도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포멜라토에는 수많은 주얼리가 존재한다. 모두 최상급 스톤을 선별해 예술적인 동시대적 미감으로 마무리한 주얼리들이다. 시대를 초월하는 미학적 코드와 비교 불가한 예술성이 깃들여 있다. 더욱이 서울 팝업은 럭셔리 업계에서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브랜드 측면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서울과 친구들(고객)을 만나고 싶다. 문의 0030-8321-0441 에디터 김하얀



Get The List



BVLGARI
(왼쪽부터) 카라칼라 스파의 로만 모자이크 패턴에서 영감을 받은 부채 모티브가 아이코닉함을 선사하는 디바스 드림 컬렉션. 로즈 골드 소재에 말라카이트 인서트와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으로 완성한 디바스 드림 네크리스 1천2백20만원, 로즈 골드에 말라카이트 장식 주위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디바스 드림 네크리스 8백70만원 모두 **블가리**. 문의 02-6105-2120



CHANEL FINE JEWELRY
(위부터) 아이코닉한 샤넬의 상징인 숫자 5를 모티브로 완성한 18K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오픈 스타일의 엑스트레 드 N°5 링,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해 볼륨감을 더한 이터널 N°5 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화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BREGUET
나폴리 여왕 카롤린 뮈라를 위해 제작된 최초 손목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으로 우아한 민트 컬러와 머더오브펠 다이얼의 조화가 아름다운 레인 드 네이플 8918 민트 가격 미정 **브레게**. 문의 02-6905-3571



LORO PIANA
2025 여성 리조트 컬렉션으로 출시한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엑스트라 백 L27. 송아지가죽에 라넨 소재를 매치해 가볍고 시원한 감성을 주며 은은한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휴양지 무드를 선사한다. 5백63만원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VACHERON CONSTANTIN
매종 창립 270주년을 맞이해 3백7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타임피스로 지름 40mm 화이트 골드 소재 케이스에 270주년 기념 모티브를 담은 실버 톤 다이얼이 돋보이는 패트리모니 셀프 와인딩 5천1백50만원 **바쉐론 콘스탄틴**. 문의 1877-4306



LOUIS VUITTON
(위부터) 유명한 일본 예술가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아이코닉한 테마를 담은 유쾌하고 우아한 LV×TM 팬 체리. 선명한 레드와 데님이 조화를 이뤄 더운 여름 시원하고 맑은 감성을 준다. 70만원대. 역시 익스클루시브한 루이 비통 x 무라카미 다카시 리에디션 컬렉션으로 모노그램 패턴에 체리 포인트가 돋보이는 LV×TM 모노그램 세리즈 방도 30만원대. 모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CARTIER
(위부터) 옐로·핑크·화이트 골드, 3개의 밴드가 한데 엮여 아이코닉한 느낌을 선사하는 트리니티 컬렉션 이어링 5백만원대, 화이트 골드 링에만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볼륨감을 부여한 트리니티 쿠션 링 2천7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문의 1877-4326



RALPH LAURE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탈리아에서 전문적으로 제작한, 이케스트리언 헤리티지에 모던한 감성을 더한 웰링턴 패턴 카프 스킨 로퍼 1백20만원대 **랄프 로렌 파플 라벨**. 폴로 말렛 실루엣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플러싱 마감한 스텔링 실버를 사용해 이탈리아에서 정교하게 제작한 말렛 그레이 카프 40만원대, 스텔링 실버 소재의 라지 ID 체인 브레이슬릿 1백40만원대 모두 **랄프 로렌**. 문의 02-3438-6235 **에디터 성장민**

이제부터 김민정

Shall We Cherry?

올여름,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 새빨간 체리가 루이 비통의 다양한 아이템을 수놓았다. 루이 비통과 무라카미 다카시가 다시 만나 그려낸 리에디션, 그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챕터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1 싱그러운 체리 모티브로 장식한 루이 비통의 LV×TM 사이드 트렁크 백.
2 데님 소재에 입체적인 체리 힐을 다한 루이 비통의 LV×TM 힐리 톨.
3 체리 모티브 자수를 놓은 루이 비통의 LV×TM 신셋 백.
4 체리 캐릭터를 프린팅한 루이 비통 LV×TM 나노 알파 백.
5 LV 로고와 체리 패턴이 조화로운 루이 비통의 LV×TM 카뮈신 미니 백.
6 화이트 캔버스에 체리 패턴을 넣은 루이 비통의 LV×TM 스피디 반들리에 30 백과 LV×TM 모노그램 세리즈 스케어 90 스카프, LV×TM 라군 스니커즈와 LV×TM 모노그램 세리즈 스크란치.

성이 가득 담겨 있다. 이번 리에디션의 세 번째 챕터는 귀엽고 발랄한 디자인을 통해 루이 비통과 무라카미 다카시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예술과 럭셔리와의 결합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아트와 패션의 달콤한 교차점, 그 중심에 선 루이 비통과 무라카미 다카시 리에디션 컬렉션의 세 번째 챕터를 장식한 체리 컬렉션을 통해 올여름 유쾌한 스타일을 즐겨보자.

문의 02-3432-1854 글 김주혜

Legendary Collaboration is Back

루이 비통과 현대미술가 무라카미 다카시(Takashi Murakami)의 리에디션 컬렉션은 단순한 복각이 아니다. 2000년대 초 대중문화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들의 협업은 이번에도 독창성과 장인 정신,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다시 한번 예술과 패션의 경계를 허문다. 전통 일본화와 현대 문화 요소를 융합한 슈퍼플랫(Superflat) 스타일의 창시자 무라카미 다카시, 루이 비통의 리에디션 컬렉션은 그의 대표 모티브인 판다와 스마일 플라워, 체리 블로섬 등이 총출동해 한층 화려해진 모습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번 리에디션 컬렉션은 아이코닉한 시티 백과 실크 스카프, 스니커즈, 주얼리, 향수에 이르기까지 무려 2백 점 이상으로 구성되어 폭넓을 뿐만 아니라 무라카미 특유의 컬러풀한 미학이 반영된 패턴은 디지털 인쇄 기술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구현되었다.

2025년 1월, 첫 번째 챕터는 멀티컬러 모노그램으로 33가지 다양하고 발랄한 색상으로 구현된 LV 로고와 플라워 패턴으로 화려함을 극대

화했고, 이어 선보인 두 번째 컬렉션은 체리 블로섬을 테마로 해 3월, 봄의 시작을 화사하게 장식했다. 그리고 여름을 앞둔 5월, 리에디션 컬렉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챕터를 선보이며 선택한 대망의 마지막 테마는 바로 체리다.

The Cherry is Coming

무라카미 다카시의 미학에서 체리는 단순한 과일이나 유쾌함, 소년성과 소녀성, 순수함을 상징하는 오브제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재기 발랄한 체리 캐릭터를 가방과 스니커즈, 다양한 패션 액세서리와 향수 라인에까지 모두 적용해 더욱 생동감 있는 무드를 전해준다. 컬러풀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의 체리들은 때로는 원크를 하고, 유쾌한 웃음을 짓는 등 패턴을 넘어 다채로운 감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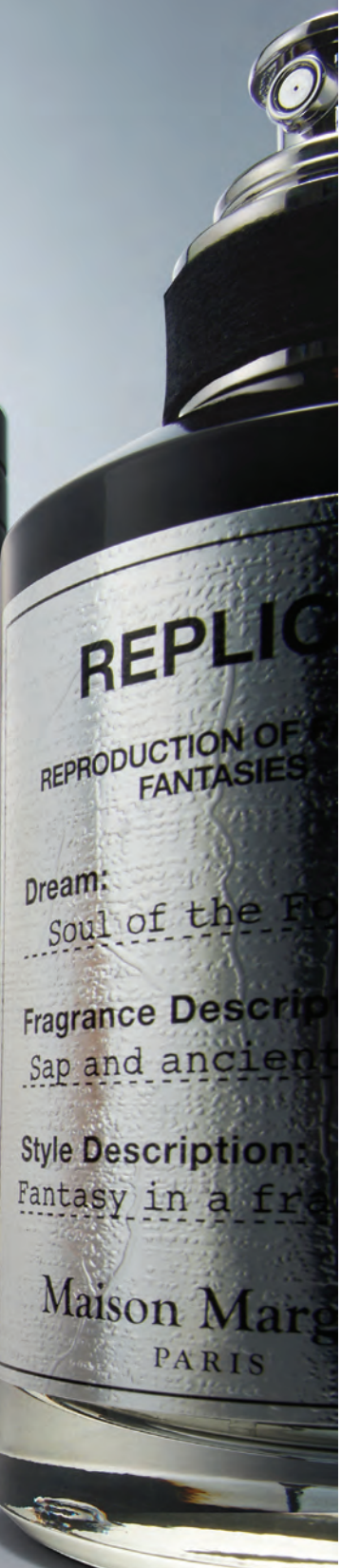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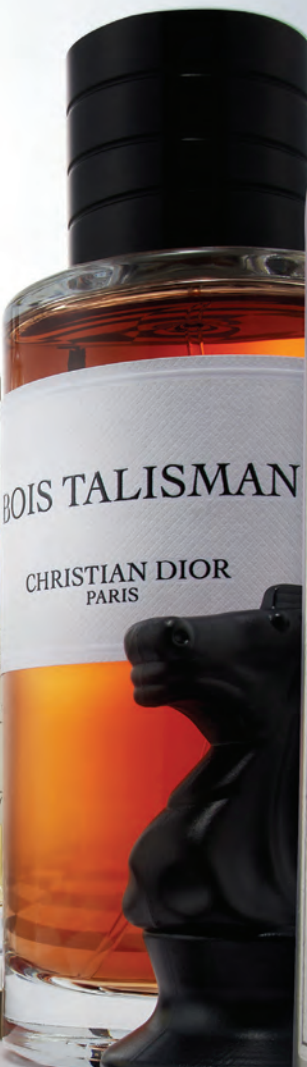
루이 비통의 시그니처 백인 스피디에 활짝 웃는 체리 캐릭터를 그려 스타일에 경쾌함을 더하고, 아웃솔이나 힐에 체리를 입체적으로 부착한 스니커즈와 샌들은 걸음마다 모두의 시선을 끈다. 이외에 열쇠고리나 귀고리, 체리 모양 참 등 작은 액세서리에도 사랑스러운 무라카미 감



Make a Choice

데일리 룩에 남성미를 더해줄 남성 향수리스트 7.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왼쪽부터 차례로) **이솝 오르너 오 드 퍼퓸** 이솝의 오랜 파트너 셀린느 바렐과의 컬래버레이션으로 탄생한 향수. 꽃잎이 아닌 매그놀리아 리프를 사용해 풍성한 숲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50ml 22만5천원대. 문의 1800-1987 **루이 비통 LV 리버스** 시더우드로 향에 깊이를 더하고, 깨끗하고 신뜻한 진저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갈바눔을 추가해 특색 있는 무드를 부여하는 향수. 100ml 가격 미정. 문의 02-3432-1854 **통 포드 뷰티 패블러스 퍼퓸** 레더 어코드의 무게감과 따뜻한 퍼 발상 앰솔루트 향의 조화로 섬세하면서 세련된 향을 느낄 수 있다. 50ml 87만6천원대. 문의 1644-3952 **브리오니 오 드 퍼퓸 수아브** 싱그러운 만다린을 시작으로 은은한 핑크 페퍼와 베티베르로 마무리되는 향. 평화로운 집의 온기를 연상시키는 포근한 느낌을 선사한다. 100ml 18만9천원대. 문의 080-363-5454 **르라보 유칼립투스 20** 유칼립투스과 시더우드의 상쾌함으로 시작해 진전한 머스크 향으로 조화를게 이어지며 사막 속 오아시스를 떠올리게 한다. 100ml 44만6천원대. 문의 1544-1345 **디올 뷰티 라 콜렉시옹 프리메 크리스찬 디올 보아 탈리스망 오 드 퍼퓸** 크리스찬 디올의 나무 조각과 프랑스스 커칭의 각설만, 두 가지 상징을 모티브로 완성한 향수로 시더우드와 바닐라를 활용해 달콤한 향을 머금은 나무 조각을 표현했다. 100ml 45만원대. 문의 080-342-9500 **매중 마르지엘라 프래그런스 소울 오브 더 포레스트 EDP** 재스민 앰솔루트와 이끼 어코드로 스파이시한 향에 달달한 우디 향을 더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여름의 시원한 숲을 떠올리게 한다. 100ml 32만5천원대. 문의 080-363-5454 인턴 에디터 **김보민**



Time of Dreams

파리를 시작으로 런던, 상하이, 뉴욕 등을 거쳐 아홉 번째 도시, 서울에 도착한 <크리스찬 디올: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Christian Dior: Designer of Dreams)> 전시회가 7월 13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다.

파리 몽테뉴가 30번지, 디올의 역사가 시작된 그곳의 문을 들어서면 나선형 계단에 나란히 서 있는 모델들을 프린트한 패브릭이 시선을 끈다(전시 후반부에서 다시 이 나선형 계단을 만날 수 있다). 1940~50년대 당시 패션쇼 사진부터 크리스찬 디올의 아틀리에까지 진귀한 아카이브 사진들을 감상하고 나면 공간별로 확실한 내러티브가 펼쳐지며 본격적인 시간 여행이 시작된다.

뉴 룩
디올의 영원한 아이콘, 뉴 룩. 1947년 첫선을 보인 전설적인 오리지널 뉴 룩과 함께 현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재해석한 뉴 룩까지 감상할 수 있는 공간. 빛과 그림자 효과로 황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미스 디올과 디올 가든
'패션의 완성'은 향이라고 했던 무수 디올의 말에서 느껴지듯 디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수 이야기로 펼쳐진다. 미스 디올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공간에서는 에바 조스팽의 설치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고, 거대한 달항아리 형상을 닮은 두 번째 공간에서는 디올의 옷들로 세계절을 표현했다. 아티스트 김현주의 한지 작품이 라란 컬렉션의 은행나무 벤치와 어우러져 특별한 느낌을 준다.

- 1 수많은 나무와 나뭇가지, 그리고 꽃을 한지로 표현한 김현주의 작품과 어우러져 세계절을 표현한 공간.
- 2 한국계 캐나다 아티스트 제이디 차가 한국 전통 보자기에서 영감받아 완성한 크리스찬 디올의 초상화.
- 3 당시 포토월 같은 역할을 했던 나선형 계단은 디올 플래그십 스토어를 상징하는 요소.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하우스 오브 디올에서도 만날 수 있다.
- 4 패션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작품으로 사랑받는 레이디 디올의 장수를 만날 수 있는 공간.
- 5 1989년부터 1996년까지 디올을 이끈 지안 프랑코 페레는 최초의 이탈리아 출신 디자이너로 많은 화제가 되었다.
- 6 글로벌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자수가 입었던 오토 쿠티크 드레스.

컬러라마
디올 액세서리에서 컬러가 지닌 중요한 의미를 탐구한 섹션. 향수부터 아이코닉한 백, 메이크업, 모자 등을 컬러로 분류한 설치 작품으로 구성해 몰입감 넘치는 공간을 구성했다.

디올 아틀리에
연필로 쓱쓱 그은 선이 만들어낸 스케치 디자인, 그 평면적인 스케치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디올 아틀리에 장인들의 섬세한 손길을 만나볼 수 있다.

디올의 유산
크리스찬 디올부터 이브 생 로랑, 마크 보양, 지안 프랑코 페레, 존 갈리아노, 라프 시몬스, 그리고 2016년부터 디올을 이끌고 있는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까지 그간 디올을 이끌어온 디렉터들의 역사적인 의상들이 하나의 내러티브로 이어지며 아티스트 제이디 차(Zadie Xa)가 완성한 크리스찬 디올의 초상화로 마무리된다.

레이디 디올
브랜드의 아이콘이자 특별한 예술적 콘텐츠를 지닌 이 매혹적인 오브제를 '디올 레이디 아트(Dior Lady Art)' 프로젝트에서 선보인 한국 아티스트 작품 9점, '레이디 디올 애즈 신 바이(Lady Dior As Seen By)' 콘셉트



트로 구현한 작품 17점과 함께 선보인다.

자도로
장-미셸 오토니엘의 매력적인 예술 작품과 빅투아르 드 카스텔란, 인디아 마다버의 손길로 완성한 마법 같은 보틀, 골드 자수 드레스 등으로 자도로 향수와 디올 앰배서더에 얹힌 풍부한 스토리를 전한다.

디올과 스타들
그레이스 켈리와 다이애나 왕세자비 같은 세계적인 유명 인사를 뮤즈로 삼아온 디올, 현재 앰배서더로 활약 중인 자수, 셀린 디옹, 제니퍼 로렌스 등과 함께 여러 디올 프렌즈를 만날 수 있다.

디올 무도회
전시장 초입에 자리한 나선형 계단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모델들을 세웠다. 별이 쏟아지는 듯한 풍경과 한국 아티스트 수 서니 박의 손길로 완성된 은은하게 빛나는 설치 작품이 어우러져 꿈과 현실이 하나가 되는 마법 같은 공간이 펼쳐진다. 글 장려윤 에디터 김하얀

*입장권은 디올 공식 웹사이트(www.dior.com/ko_kr/fashion/designer-of-dreams)에서 구매할 수 있다.





The Evolution of Great Heritage

대한민국 최초의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난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더 헤리티지'의 개관이다. 유서 깊은 1930년대 건축물을 복원하고, 글로벌 브랜드와 한국적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재웠다. 더불어 본관은 '더 리저브'로, 신관은 '디 에스테이트'로 재단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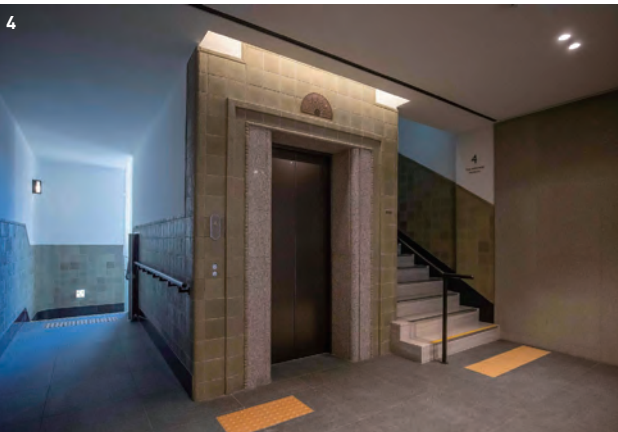


건축물에도 수명이 있다. 그러나 간혹 어떤 건축물은 가치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얻기도 한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지은 파리의 오르세 기차역이 대표적인 예다. 한때 기차 운행이 중단되며 버려진 공간이었다가 1986년 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 현재는 루브르 박물관과 더불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파리의 랜드마크 중 하나다. 서울의 중심, 남대문과 명동 사이에 자리한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도 한동안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잠들어 있었다. 1935년 처음 준공된

이 건축물은 한국산 화강석으로 마감한 네오 바로크 양식의 대표작이다. 은행 건물로는 국내 최초로 철골·철근 구조를 사용했고, 한국 전쟁 중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아 준공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화려한 듯 우아한 비례와 균형을 보여주며, 특히 천장에 장식된 꽃 모양의 석고 부조가 걸작이라는 평을 받는다. 역사·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9년에는 서울시 유형문화재(제71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 세기 가까이 서울의 역사를 묵도한 증거물이자 명실공히 우리나라 건축사의 기념비적인 건축물 중 하나다.

“재생 건축이라는 지속 가능한 행보 속에, 과거와 현재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국내 대표 유통 기업의 야심 찬 포부가 엿보인다”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더 헤리티지'
이 특별한 공간에 신세계백화점이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더 헤리티지(The Heritage)'라는 이름으로 국내 럭셔리 유통 시장을 이끌 랜드마크를 개관한 것이다. 주변 일대가 신세계백화점의 탄생 배경이라는 점 또한 의미 있다. '재생 건축'이라는 지속 가능한 행보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국내 대표 유통 기업의 야심 찬 포부가 엿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업했고, 30차례 이상의 자문을 통해 기존 건물을 최초의 모습과 90% 가깝게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1층의 꽃 모양 석고 부조를 원형 그대로 재현한 점이 눈길을 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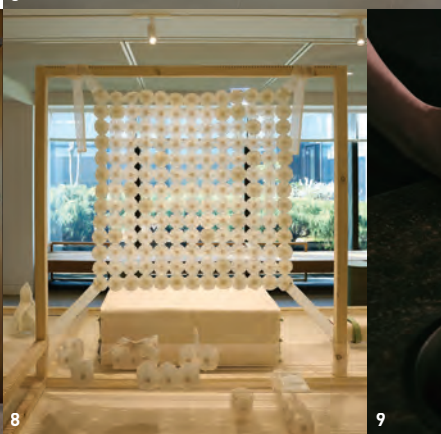


다. 과거 은행에서 사용했던 금고의 문 또한 고스란히 되살려 전시장으로 옮겨놓았다. 물론 단순히 복원에만 치중하지 않고 신세계만의 현대적 해석도 가미했다. 하얀색 강철 패널로 제작한 납축 커튼 월은 뉴욕의 '더 모건 라이브러리 & 뮤지엄'에서 영감을 받은 것. 건물에 트렌디한 느낌을 더하는 동시에 기존 화강암 외벽과 해사한 조화를 이룬다. 옥상에는 태양열 집열판을 해체하는 대신 도심 속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야의 정원을 조성했다. 또 이동 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신설하는 등 고객의 편의에도 신경 썼다.

글로벌 브랜드와 한국의 전통을 한자리에
'더 헤리티지' 1층과 2층에는 세계적인 패션 명가인 샤넬의 플래그십 부티크가 자리 잡았다. 하우스와 오랜 시간 협업해온 세계적 건축가 피터 마리노가 매장 설계를 맡아, 건축물의 역사적 요소에 샤넬의 DNA를 접목한 색다른 공간을 선보인다. 넓은 공간을 활용한 효율적 배치도 장점이다. 레디투웨어(RTW)와 핸드백, 슈즈를 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워치 & 하이주얼리 살롱도 따로 마련했다. 여기에 피터 마리노가 직접 선정한 70여 점의 예술 작품과 오브제가 어우러져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선사한다. 건축학적 보전 가치가 높은 '더 헤리티지' 4층은 역사관과 갤러리로 꾸몄다. 역사관에서는 대한민국 근대 유통을 이끌어온 신세계의 다양한 소장품과 유물, 사료 등을 전시한다. 갤러리 개관전으로 1930~50년대 남대문과 명동 일대를 조망한 사진전 <명동 살롱: The Heritage>가 열리고 있다. 한영수, 임응식, 성두경 등 사진가 3명의 시선을 통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 그 당시 풍경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최상부인 5층에는 '하우스 오브 신세계 헤리티지'가 자리한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신세



1 1935년에 지은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을 재건축해 '더 헤리티지'를 개관했다. 한국산 화강석으로 마감한 네오바로크 양식의 대표작이다. 2 건축물의 역사와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4층 전시장. 3 과거 천장에 장식되어 있던 꽃 모양 석고 부조를 그대로 재현했다. 4 기존 건물을 90%가량 복원하고 엘리베이터 등 편의 시설을 확충했다. 6, 7, 8 한국의 문화유산을 신세계의 안목으로 풀어낸 5층의 '헤리티지 오브 신세계'. 현재는 보자기 문화를 조명하는 전시 <담아 이르다>를 진행 중이다. 9 정갈한 분위기의 디지털 살롱에서는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계절을 담은 한과와 시그니처 티, 18세기 저서에 기초해 개발한 오리지널 블렌드 티 등을 맛볼 수 있다. 5, 10, 11, 12, 13 지하 1층에 마련한 공예 기프트 룸에서는 한국의 헤리티지를 담은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계의 안목으로 풀어낸 공간이다. 국내의 여러 장인 및 작가와 협업해 한국적 요소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한국의 보자기 문화를 조명하는 전시 <담아 이르다>를 진행 중. 웨디에 클래스와 강연, 워크숍 등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안쪽으로는 정갈한 분위기의 '하우스 오브 신세계 디지털 살롱'이 이어진다. '신세계 한식연구소'가 운영하는 이곳에서는 오랫동안 한국의 디지털을 연구하고 재해석해 자체 개발한 30여 종의 메뉴를 선보인다. 전례 음식 연구가 서명환, 티마스터 김동현이 힘을 보탰다. 계절을 담은 한과와 시그니처 티, 18세기 저서 <부풍향차보>에 기초해 개발한 오리지널 블렌드 티 등을 맛볼 수 있다. 지하 1층에는 한국의 헤리티지를 선분할 수 있는 공예 기프트 룸을 마련했다. 장인·작가와 협업해 완성한 독점 상품은 물론, '하우스 오브 신세계 헤리티지'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관심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반가운 추천 코스가 될 전망이다. 지하 1층에는 프랑스의 럭셔리 크리스털 브랜드 '바카라'와 '라리끄', 실베에어 브랜드 '크리스토폴', 덴마크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룹슨' 등도 자리해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신세계가 바꾸는 서울 풍경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더 헤리티지' 개관에 맞춰 기존 본관과 신관에도 신선한 변화를 꾀했다. 본관을 '더 리저브(The Reserve)'로, 2005년 개관한 신관 역시 '디 에스테이트(The Estate)'로 새롭게 명명한 것. '디 에스테이트'는 지난달 리뉴얼을 거쳐 명품과 식음료 분야를 강화했으며, '더 리저브' 또한 올 하반기 중 새 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오픈할 계획이다. 고객들의 보다 편리한 접근을 위해, 블랙 다이아몬드 등급 이상의 고객을 위한 '더 헤리티지 발렛 라운지'도 신설했다. 디 에스테이트에 마련한 '퍼스트 프라임 라운지', 더 리저브에 곧 오픈할 '트리니티 라운지' 등과 더불어 한층 격조 높은 VIP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신세계백화점 박주형 대표는 "신세계의 모든 역량과 진심을 담아 더 헤리티지를 개관했다"라고 전하며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관광의 즐거움과 쇼핑의 설렘, 문화의 깊이까지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세심하게 준비한 만큼 반응도 뜨겁다.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중장년층부터 핫플레이스에 열광하는 젊은 층, 관광 시즌에 맞춰 한국을 찾은 외국인까지. 단순한 쇼핑을 넘어 공간과 스토리를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간 우리의 전통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한국적 헤리티지를 고급스럽게 풀어낸 공간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더 리저브'까지 새롭게 개관하면 타운화가 완성되는 것은 물론 서울 주변부까지 보다 역동적인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가 바뀌나갈 2025년 서울의 풍경이 기대되는 바다. 글 윤정은



상큼한 레몬 컬러를 입은 레인보우 플라워 디시. 20cm, 5만9천원 **르크루제**. 문의 1877-4281

베르데 마울리카 자기를 사용했으며 이탈리아 장인 고유의 파토 아 마노 수공예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에스프레소 잔과 받침 세트 가격 미정 **돌체앤가바나 카사**. 문의 www.dolcegabbana.com

화려한 공작새를 형상화한 실루엣과 골드로 장식한 트림이 어우러진 정교 피륙 베이스 가격 미정 **바카라**. 문의 02-3448-3778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새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오 드 nil(Eau de Nil) 컬러의 카멜리아 티 팻 가격 미정 **포트넘 앤 메이슨**. 문의 02-310-1548

핑크빛 선인장꽃 위에 앉은 새를 이국적으로 표현한 패시 커팅 크리스탈의 이탈리아 슈가버드 앤드 액터스 플라워 75만원 **스와로브스키**. 문의 02-1522-9065

Blooming Days

아늑한 집 안에 호드러지게 피어난 크고 작은 플라워 리빙 아이템.



양귀비꽃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화이트 있는 테이블 연출이 가능한 라파엘 와일드 플라워 센터피스 플레이트. 40cm, 11만9천원 **아르코트**. 문의 1522-0176



레드 톤 플로럴 패턴이 특징인 프리마베라 쿠션 커버 6만9천원 **마리메코**. 문의 1833-2250

목재로 만든 4개의 꽃잎을 부드러운 카프 스킨으로 감싼 블라썸 스톤 - 요시오카 도쿠진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친근하고 목가적인 분위기의 애널리츠 듀벳 베딩 커버 62만원대 **랄프 로렌 홈**. 문의 02-6004-0221



암체어부터 일자형 소파, 코너형 소파 등까지 변형 가능한 모듈형 노스 소파(NOS Sofa). 6침만원대 **클렉신 파르티컬리에르**. 문의 02-3447-6000 **에디터 신정임**

Wonderful Wellness

아름다운 해변을 간직한 베트남 중남부의 한적한 해안 도시 나트랑에 위치한 빌라 르 코라이, 그란 멜리아 나트랑. 이곳에서 스파 테라피를 통한 휴식, 활력을 일깨우는 보디 무브먼트, 마인드풀니스, 웰니스 퀴진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프라이빗한 풀 빌라에서의 온전한 휴식

베트남의 나폴리라 불리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 나트랑. 갠리인 국제공항에서 차로 1시간가량 소요되는 위치에 자리한 빌라 르 코라이, 그란 멜리아 나트랑은 페어리 마운틴 베이 해변과 인접해 자연과의 조화로운 배치가 인상적이다. 전 세계 40개국에서 3백여 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하는 스페인 본사의 호텔 브랜드 '멜리아 호텔 인터내셔널'의 고급 브랜드인 만큼 '웰니스적인 삶'을 지향하는 스페인 정신과 베트남식 환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리조트는 총 44헥타르 규모로, 99채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든뷰 룸부터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해안 스위트, 수영장이 있는 라곤 빌라 풀 파빌리온, 약 638㎡(1백93평)에 달하는 4베드 룸 그란 오션 풀빌라까지 총 20여 가지 다양한 객실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7월 오픈한 빌라 르 코라이, 그란 멜리아는 훌륭한 부대시설로도 유명하다. 전용 해변을 갖추어 한적하게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넓은 야외 수영장과 물사이드 바도 준비되어 있다. 온천, 럭셔리 스파 시설을 갖춰 일상 속 묵은 피로를 눈 녹이듯 녹여낸다. 만족스러운 식사도 이곳의 장점 중 하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셰프 마르코스 모란이 선사하는 신선한 프리미엄 스페인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히

스파니아, 세련된 미감과 깔끔한 맛의 스파와 그릴 요리를 만날 수 있는 '시부이', 지중해 요리와 아시아 요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나투라', 세 가지 레스토랑을 구비해 취향별로 선택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웰니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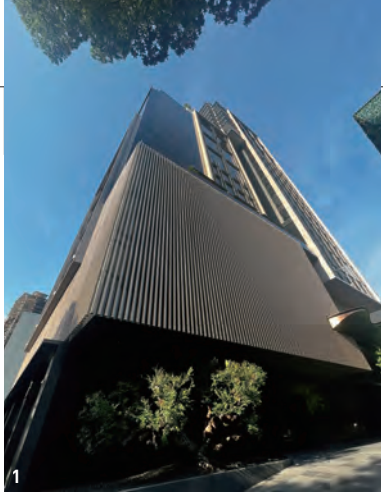
빌라 르 코라이, 그란 멜리아 나트랑이 특별한 것은 체계적인 웰니스 프로그램 때문이다. 첫 여정은 웰니스 어드바이저와 함께 개인 맞춤 웰니스 상담을 진행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현재의 스트레스 상태나 불편한 신체 부위, '그라운드', '어웨이크닝', '벨런스' 중 어느 것에 집중하고 싶은지 다양한 항목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한 후 1:1 상담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송 스파에서 각 개인에 맞춤 시그니처 스파 리추얼을 경험하게 된다. 산호초의 생영 순환에서 영감을 받은 송 스파의 모든 프로그램은 각 개인 본연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클래식 터치 테라피로 몸의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부드러운 중기로 피부를 정화하는 하림을 곁들인 탈라사 스킨케어로 활력을 일깨우며, 시그니처 테라피인 '송 테라피'를 통해 파도처럼 이어지는 부드러운 롱 스트로크에 몸을 맡기고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 "마사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을 이어가는

- 1 4개의 침실과 별도의 라운지, 간이 주방이 있는 다이닝 룸, 바다를 내려다보는 테라스와 전용 수영장을 갖춘 비치 프론트 빌라.
- 2 시원한 바다 뷰의 넓직한 수영장을 즐길 수 있는 오션 프론트 원 베드룸 풀 빌라.
- 3 오션 프론트 원 베드룸 풀 빌라 객실 풍경. 넉넉한 크기로 다수의 인원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4 송 스파에서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보디 마사지부터, 바다에서 얻은 천연 성분을 사용한 페이스 & 보디 케어 등을 경험할 수 있다.
- 5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 로베르토 카발리의 홈 인테리어를 적용한 그랑 오션 빌라. 감각적인 가구 및 인테리어 요소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 6 바다 전망의 고급 일본 레스토랑 시부이에서 신선한 재료와 세련된 감각으로 완성한 스시 오마카세와 칠판구이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거예요. 마사지사들의 동작에 맞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해독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송스파의 테라피스트는 이처럼 덧붙였다. 다음 날 아침은 요가의 흐름과 베트남 전통 의학의 원리에 기반한 움직임인 무브먼트 테라피로 시작된다. 고대 요가 자세와 호흡법을 동양철학과 결합해 몸과 마음 모두를 회복시키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사용한 후에는 최상의 자연 식재료를 구성한 건강한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할 차례. 각 요리는 오형의 지혜를 바탕으로 다양한 메뉴를 코스 형식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는데, 에너지와 내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금치, 케일, 원두콩같이 신선한 녹색 채소, 파인애플, 생강, 강황 등 소화를 촉진하고 몸에 온기를 더해주는 식재료, 과일 등을 배합해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웰니스 프로그램에서 음식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베트남 전통 의학에서는 기, 음양, 이론을 바탕으로 건강을 해석하고 치료하는데, 그중에서도 오장육부의 균형과 온기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몸속 장부들이 따뜻해야 비로소 제 기능을 다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서 식사나 스파, 매일 테마에 따라 달라지는 육조 리추얼 타임을 가진 후 생강, 계피, 구기자, 감초 등 따뜻한 성질의 재료를 우려낸 허브차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 온천, 송 스파 내 사우나 체험을 통해 온기를 서서히 더해간다. 안정을 주는 스파, 활력을 깨우는 무브먼트 테라피, 오형의 지혜가 담긴 식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를 위한 돌봄 습관까지. 이번 여름 단순한 '휴'를 넘어 자신과 마주하고 건강한 삶의 리듬을 되찾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빌라 르 코라이, 그란 멜리아 나트랑을 찾아볼 것. 진정한 웰니스란 멀리 있지 않으며, 삶 속 작은 의식에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문의 디벨롭컴퍼니 1551-1151, **에디터 이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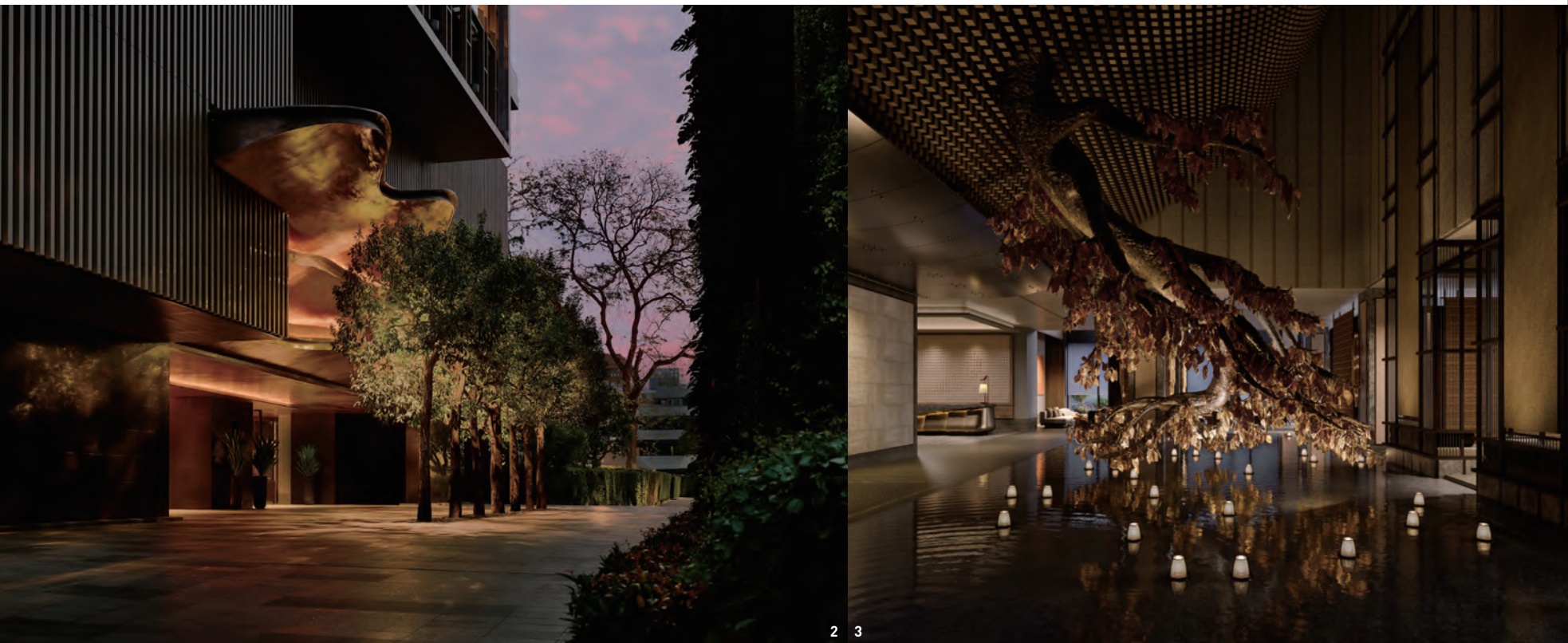




아만 나이라트 방콕(Aman Nai Lert Bangkok)

단단한 뿌리 위에 세운 도심의 풍요로운 안식처

알록달록한 불빛을 요란스럽게 뿜어내며 도로를 활주하는 명물 '독특'과 날카롭게 하늘을 향해 치솟은 건물 숲으로 뒤덮인 스카이라인, 불교의 나라답게 수많은 사원까지 화려한 생동감이 깃든 특유의 분위기를 지닌 천태만상의 도시 방콕. 방대한 토양에서 비롯된 풍부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꽃피운 기나긴 미식의 역사를 자랑하듯 미술관 레스토랑, 아시아베스트 레스토랑과 바(bar) 목록에 단골처럼 이름을 올리기도 하는, 태국의 심장이다. 덕분에 관광으로 따지자면 아시아 지역 최상위를 다투는 메트로폴리스이기도 한 방콕에는 그 명성에 걸맞은 럭셔리 브랜드 호텔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기에, 웬만해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분위기다. 물론 그 명단에 더해지는 브랜드가 '아만(Aman)'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스탬프 찍기' 하듯 세계 곳곳의 아만을 찾아다니는 골수 팬들이 있을 정도로 팬덤이 단단하고, 그만큼 차별된 오라와 독보적인 위상을 점한 브랜드 아니던가. 더구나 아만의 역사가 바로 태국에서 비롯되었기에, 방콕에서의 등장은 더 뜻깊을 수밖에 없다. 싱그러운 나무 향 가득한 봄날의 정원을 품은 채 문을 연 아만 나이라트 방콕(Aman Nai Lert Bangkok)에 다녀왔다.



'아만 정기'라는 표현이 존재할 정도로 럭셔리 호텔업 계에서 브랜드 팬덤이 넘치는 아만(Aman). 새로운 아만의 공간이 생기면 반드시 찾아가는 열정과 충성심을 지닌 팬들로 유명하지만 지난 4월 초 문을 연 아만 나이라트 방콕(Aman Nai Lert Bangkok)의 등장은 특히 더 주목을 끌 만한 이유가 있다. 1988년 리조트업계에 강렬한 인상과 함께 지속적인 파장을 일으킨 아만 1호인 아만푸리(Amanpuri)가 바로 태국에 자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무엇, 요즘 럭셔리 호텔의 역동적인 격전지가 방콕이기도 해서일 터다. 사실 대자연 속 '외딴 절경'을 품은 보석 같은 땅을 기막히게 발굴해내는 위치 선정의 달인인 아만이 베니스(2013), 도쿄(2014), 뉴욕(2022) 같은 내로라하는 도시의 명칭을 그대로 이름에 넣은 호텔을 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접근성이 좋은 인기 도시에서도 아만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에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이들도 있었지만, 브랜드 정체성이 희석될까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살짝 의구심을 품은 채 도심형 아만을 몇 차례 경험해본 필자는 매번 브랜드의 정수를 지키기 위해 기울이는 허를 내두를 정도의 세심한 노력과 투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스토리텔링의 매력에 감탄해왔기에 방콕의 사례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못내 궁금했다.

'녹음에의 의지'를 드러내는 호텔과 레지던스
햇살 사이로 스며드는 싱그러운 나무 향이 기본 충격을 자극하면서 인사를 건네는 듯 청신한 봄날, 대사관들이 위치한 롬피니 지역에 호젓하게 자리한 아만

1 대사관들이 위치한 롬피니 지역에 호젓하게 자리한 아만 나이라트 방콕.
2 지난 4월 초 문을 연 아만 나이라트 방콕의 입구.
3 로비가 있는 9층에 위치한 상징적인 작품, 금 소재 일사귀가 6천 개나 달린 12m 높이의 큰 조각으로 실제 모델인 참추리나무는 호텔 부지에 자리한 나이라트 공원에 있다.
4 하지만 절고 아름다운 녹음을 뽐내는 나이라트 공원에 자리한 '나이라트 파크 헤리티지 홈'.
아만 나이라트 방콕의 피트니스 나이라트 집안 사람들이 실제로 살았던 자택으로 가구, 미술품 등 가문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곳곳에 펼쳐져 있다. 같은 부지 내에 레스토랑도 운영한다.
5 아만 나이라트 방콕은 객실 전부(52개)가 스위트룸, 그리고 34개의 레지던스로 이루어졌다.
6 호텔 건물 12층에 자리한 인상적인 아트룸.
7 로비층에 자리한 아만의 시그니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브랜드 아르바(Arva).

나이라트 방콕은 '신록의 정기'로 맞이해왔다. 정문 앞 가지런히 줄을 선 키 큰 나무들을 뒤로하고, 로비층인 9층으로 올라가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나무 형태의 커다란 조각 작품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접했던 작품이지만 금 소재 일사귀가 6천 개나 달린 12m 높이의 큰 조각이 공간을 화사하면서도 무게감 있게 물들이는 실물의 존재감은 확실히 달랐다. 이 방식치 않은 조각의 실제 모델인 참추리나무는 호텔 부지에 자리한 나이라트 공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나이라트'는 아만의 아번 방콕 프로젝트 파트너인 태국의 명문가로 이 공원 역시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울창한 녹음을 뽐내는 나이라트 공원은 아무래도 사유지라 더 한적한 운치를 자아낸다. 분명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데도, 아만 나이라트 방콕의 총 지배인 테드 터커가 아만을 상징하는 수식어로 꼽은 '고요함(serenity)'이 풍만하게 깃든 땅이다. 그의 설명처럼 아만은 태국에서 36년 넘게 존재감을 떨쳐오며 잘 자리 잡고 있기에 든든한 파트너십이 성사되는 데 보탬이 됐을 것이다. 공원 내에는 실제 그들의 옛 저택으로 오래된 가구, 미술품 등 가문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나이라트 파크 헤리티지 홈(Nai Lert Park Heritage Home)'도 있다. 이곳에 걸린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 표범을 반려동물로 삼을 정도로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를 지녔던 창립자(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어지면서 사업(무역)과 행정(관료)을 넘나들고 럭셔리 호텔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도 했던 나이라트 가문의 이름은 호텔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아만 계열에서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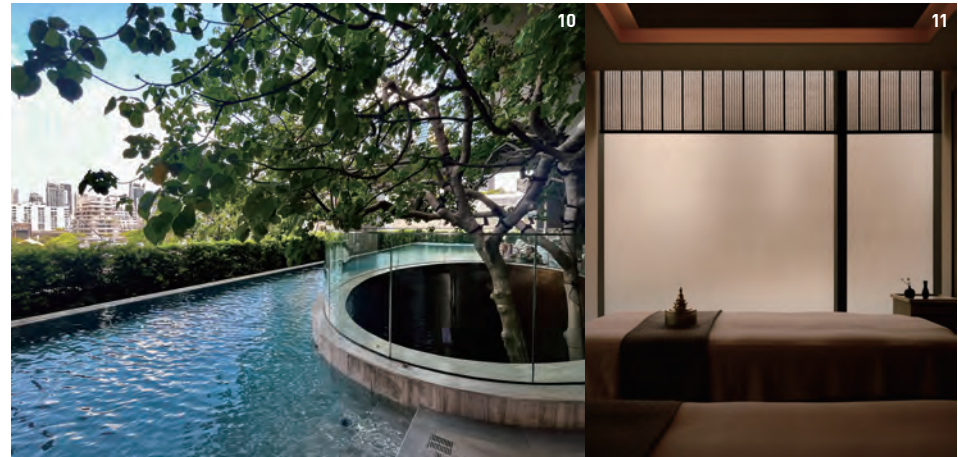
나이라트 집안에서 과거 상업의 거점 역할을 했던 현재의 부지를 사서 집을 짓고 아담한 공원을 조성한 시기는 무려 19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콕에서 이곳은 '나무들의 센터(the center of trees)'나 마찬가지예요. 흔히 볼 수 없을 만큼 수령이 오래된 아름다운 나무들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죠." 유려한 곡선의 가지들을 길게 드리운 참추리나무도 감상할 겸 공원을 거닐면서 정원 지킴이의 설명을 듣다가 고개를 돌려 호텔 파사드를 올려다보니 그가 말한 '생명력'의 실체가 거기에도 깃들어 있었다. 파사드 중간을 뚫고 초목의 기운을 내뿜고 있는 웅장한 나무의 일부만이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나이라트 집안에서 애지중지하는 1백 세가 훌쩍 넘는 솜풍나무인데, 36층짜리 아만 나이라트 방콕(52개 스위트룸과 34개 레지던스로 구성)의 건축 설계는 키가 32m 가까이 되는 이 영물을 중심으로 펼쳐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치 호텔의 수호신처럼 버티고 있는 이 등적한 솜풍나무의 밑동이 레지던스 정원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고, 호텔 투숙객들은 인피니티 풀이 있는 공간에서 그 느림한 자태(장간 기동)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자연 속 조화를 통한 '힐링의 미학'을 실천하는 아만의 고집

이처럼 녹음을 위시한 '자연의 미학'은 객실과 아트룸, 레스토랑, 웰니스 공간으로도 과하지 않게 이어진다. 럭셔리 호텔업계의 문법을 차분히 구축해온 디자인 구루 중 하나인 장-미셸 게티의 손길이 닿았는데, 11층부터 18층까지 포진하고 있는 객실은 그 자체로 차분한 색조와 편안한 세련미가 깃든 온화한 디자인 감성이 돋보인다. 나무의 결을 본뜬 부드러운 곡선 장식을 벽에 두르고 있고, 일부는 바나나나무 껍질을 소재로 활용하기도 하는 등 목재를 활용했다. 모든 객실이 스위트인 만큼 여유로운 공간에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내다보이는 시원한 통창, 석시어나 브랜드의 매트리스를 깐 침대 말고도 데이 베드와 소파 베드, 폭신한 스톨 등 휴식을 위한 다양한 가구를 배치해 힐링을 돕는다. 3개의 아트룸을 수놓은 커다란 설치 작업은 저마다의 감성으로 자연을 연상시킨다. 또 로비층에 있는 1872 라운지 바(bar)의 상단을 장식한 구름 모양의 설치물은 태국 전통의 그림자 연극을 연상시키는 요소를 지녔다고 하는데, 치앙마이 지역의 장인들이 나무 패널과 가죽 소재로 빚어낸 작품이다. 심지어 첨단 안바디 마신, 복싱, 수조수 전용 기계 등의 시설을 갖춘 피트니스 공간의 벽까지 천 소재에 핸드 페인팅을 입혀 자연스럽고 따스한 분위기를 풍긴다. 피트니스 공간을 비롯해 의사까지 동반한 전문 테라피를 제공하는 '허티튜드(Heritute)' 클리닉과 인피니티 풀, 타이 정통 기법과 쌀을 활용한 기법 같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빈야(Banya) 스파 하우스 등을 갖춘 아만 스파 & 웰니스 센터(Aman Spa & Wellness)는 면적이 1,500㎡(약 4백53평)에 이르며 조용한 안락함을 지향하는 디자인을 구비해, 산책과 운동을 통해 심신의 조화를 꾀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면 굳이 호텔 밖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물론 도심의 소풍기와 가깝고 요즘 '핫한' 방콕 '패피'들의 전당인 '디올 골드 하우스'의 경우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는 점은 기억해둘 법하지만 말이다.

'미식의 메카' 방콕다운 맛의 향연

아만 나이라트 방콕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또 다른 요소는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늘 기억의 밑도에서 중요한 존재인 '미식'이다. 먼저 로비층(9층)에 있는 아만의 시그니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브랜드 아르바(Arva)에서는 명성에 걸맞은 오찬과 만찬을 즐길 수 있는 동시에, 투숙객들이 아침을 함께 시작할 수 있다. 조식에도 뷔페 대신 정갈한 단품 메뉴를 선사하는 아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데, 예그 베네딕트 같은 글로벌 인기 식단뿐 아니라 쌀죽인 '죽(jok)'을 비롯한 태국 현지식도 일품이다. 살짝만 씹어도 부드러운 식감을 기본 좋게 감싸는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요리라든가 흔히 쓰는 가루 대신 태국산 '짬' 초콜릿을 알고도 진하게 입힌 티라미수 등 재료의 미학을 만끽할 수 있도록 메뉴를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872에도 다양한 메뉴의 식사와 신선한 제철 과



8 로비층에 있는 1872 라운지 바(bar).
9 태국 현지와 풍부한 식재료는 물론 일본 여러 지역에서 구수한 재료를 바탕으로 한 철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히오리(Hiori). 같은 층인 19층에 스시 오마카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스이(Sesui)도 있다.
10 나이라트 집안이 소중히 여기는 상징적인 솜풍나무가 호텔의 든든한 수호신처럼 인피니티 풀 옆에 자리한다.
11 면적이 1,500㎡(약 4백53평)에 이르며 조용한 안락함을 지향하는 아만 스파 & 웰니스 센터에는 피트니스는 물론 첨단 기법을 동원한 테라피, 마사지 등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
12 아만 나이라트 방콕에서 도보로 5분 정도면 시야에 들어오는 디올의 팝업 매장 골드 하우스.
※ 1, 4, 9, 10, 12 Photo by 고성연
※ 2, 3, 5-8, 11 © AMAN

일을 활용한 아름다운 디저트가 오감을 일깨워주는 듯한 애프터눈 티 세트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19층에는 일식과의 인연이 깊은 아만답게 철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히오리(Hiori)', 스시 오마카세를 즐길 수 있는 '세스이(Sesui)'가 나란히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직접 구수한 와규, 성게, 참치 등을 비롯한 최고의 식재료를 장인 정신으로 다루는 셰프들의 솜씨를 지켜보면서 담소를 나누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처럼 '미식의 메카' 방콕다운 풍요로움과 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식도락의 매혹이 곳곳에서 숨 쉬고 있다(인상적인 인테리어를 품은 시가 바도 있다). 밤이 깊어갈 때,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최극한 중류주와 사케, 칵테일 등을 훌쩍일 수 있는 아만 라운지(역시 19층)에서 누리는 반짝거리는 야경은 기본 좋은 '덤'이다. 글 고성연(방콕 현지 취재)



에스티 로더 빙수 블리스 메이크업 컬렉션
- 퓨어 컬러 젤리 글로우 밤 pH 반응 립밤으로
각자의 입술에 맞는 자연스럽고 생기 있는
컬러로 연출해준다. 3g 3만8천원대. 문의
02-6971-3212_by 인터넷 에디터 김보민

Editor's Pick

따스한 빛의 색조와 자연을 연상시키는 향으로 더없이
차분하게 맞이하는 6월의 신상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OON JI YOUNG**

라부렛 엑스포리에이팅 바디 세럼 보습 효과부터 각질 제거까지 가능한 만능 바디 세럼이다. 짙어진 아홉뿔에 신경 쓰이는 팔꿈치, 무릎에도 효과가 좋은 편. 120ml 8만9천원.

문의 1644-4490_by 에디터 김하얀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김하얀

트루동 씬머 헤이즈
클래식 캔들 상큼한
레드베리 향에 애플루트
로즈와 머스크 향이
어우러져 세련되면서도
부드러운 향기를 선사한다.
270g 19만원대.
문의 02-6905-3324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나스 뷰티 에블루션 컬렉션 - 쿼드
아이섀도우 #사쿠라 리미티드 셰이드로 네
가지 컬러로 구성해 포인트 아이 메이크업으로
연출 가능하다. 1g×4 7만4천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다들 NEW 다들 어딴트 립 글로우 버터 #105
 펠타이드와 세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한 립 트리트먼트로,
 바르는 순간 느껴지는 민트 향과 촉촉한 보습감, 은은한
 컬러가 일품이다. 10ml 5만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성정민**

NEW PERFUME
샤넬 샹스 오
과일과 장미
상큼한 라즈

사일 샵스 오 스피켄디스
과일과 장미 향을 머금은
상큼한 라즈베리 향이
은은한 화이트 머스크와
우디 향으로 이어지다
예상치 못한 아이리스
향으로 인도한다. 색다른
플로럴 향을 찾는다면
추천한다.

11월 28만4천원.

문의 080-805-9638

_by 에디터 김하얀

모이폴리 선레스 멜라케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며, 화이트닝과
 주름 개선 기능까지
 더했다. 올여름 선크림은
 이거 하나면 충분!
 20g 3만1천원.
 문의 070-8800-2128
 _by 에디터 **신정임**

맥 글로우 플레이 라이트풀 C3 톤-업
프라이머 SPF 50+ PA+++ 로지 피치
자연스러운 톤 보정, 자외선 차단, 보습한
마무리감까지 갖추었다. 30ml 6만3천원.
문의 1644-3748 by 에디터 성경민

문의 1644-3748_by 에디터 성정만

시세이도 싱크로 스킨 래디언트
리프팅 컨실러 201 라이트 크리미한
텍스처로 부드럽게 발리며 들뜨지
않고 자연스럽게 커버된다.
2.7g 4만7천원대.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신정임

by 에디터 신정임

에르메:
로즈 피

에르메스 뷰티 레 망 에르메스 네일 에나멜 04
 로즈 파필리온 투명한 핑크 컬러가 화사함을
 더해준다. 기본 전환 겸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추천. 15ml 7만3천원.
 문의 02-310-5174 _by 에디터 신정임

※ 성정민(30대 민검), 김하얀(30대 건성), 신정임(20대 복합성), 김보민(20대 지·복합성)



1 스와로브스키 일루미네이션 미니언즈×스와로브스키 모던 크리스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스와로브스키가 일루미네이션의 미니언즈(Minions)에서 영감을 받은 미니언즈 피겨링 컬렉션을 선보였다. 열로와 블루 컬러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미니언 케빈, 스투어트, 밥을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스와로브스키 공식 홈페이지(www.swarovski.com) 및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22-9065

2 반클리프 아펠 ‘스프링 이즈 블룸잉(Spring is Blooming)’ 행사 반클리프 아펠이 잠시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에서 ‘스프링 이즈 블룸잉(Spring is Blooming)’ 아의 전시 행사를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한다. 2020년부터 반클리프 아펠과 함께한 프로그램 아티스트 알렉산드로 벤자맹 나베의 생생한 컬러와 역동적인 설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에어 플레이 마스크’, 바람끼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의 1877-4128

3 시몬스 N32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에서 다가오는 여름 무더위 극복용으로 N32 제품을 제안한다. 천연 식물성 리넨 카튼 원단을 사용해 뛰어난 통기성을 자랑하는 N32 매트리스와 아이슬란드 청정 지역의 유기농 해조류와 식이 섬유인 셀룰로스를 함유한 아이슬란드 씨셀® 소재가 특징인 N32 '아이슬란드 씨셀® 하이바 밀로우', '하이바 듀벳'으로 쾌적한 숙면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 1899-8182, www.simmmons.co.kr

4 다을 파인주얼리 디오렉스큐즈 하이 주얼리 컬렉션 다을 파인주얼리에서 하이 주얼리 디오렉스큐즈(DIOREXQUIS) 컬렉션을 공개했다. 다을 주얼리 디렉터 빅투아르 드 카스탈란은 아름다운 풍경(landscapes), 섬세한 가지(bouquets), 마법 같은 갈라(galas, 연회), 세 가지 테마로 선보였으며 정교한 디테일로 완성한 정수토와 다이아몬드 세팅이 특징이다. 문의 02-3280-0104

5 피아제 포제션 컬렉션 피아제가 시그너처 기법인

데코 팔리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포제션 주얼리 컬렉션을 출시했다. 어떤 조명에서도 눈부신 빛을 발하는 데코 팔리스 기법과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브레이슬릿, 링, 이어링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1668-1874

6 타사키 밸런스 다이아몬드 솔로 라인 제안 파인
주얼리 브랜드 타사키에서 6월, 진주의 달을 기념해
밸런스 다이아몬드 솔로 라인을 제안한다. 타사키의
대표 라인인 밸런스에 영롱한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더한 네크리스, 이어링, 링을 하나의 세트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61-5558

7 특시방 신라스테이×특시방 협업 프랑스 프로방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특시방과 신라스테이가 협업해 객실 어메니티를 새롭게 선보였다. 신라스테이 전국 15개 지점(제주 제외)의 객실 어메니티를 특시방 대표 컬렉션인 '베베라' 라인으로 적용하고, 연말까지 아로마콜로지 트레블 키트를 제공하는 릴랙싱 위드 특시방 패키지를 선보인다.

문의 02-2054-0500

8 포맬라토 디 아트 오브 누도 포맬라토의 아이코닉한 누도 컬렉션을 기념하는 '디 아트 오브 누도' 팝업 행사가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성수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젤스톤이 궁중에 떠 있는 듯한 누도(naked) 세팅과 컬러 젤스톤 등 아이코닉한 디자인부터 누도의 탄생 여정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선보였다. 문의 031-5370-2168

9 다울 **〈크리스찬 다울: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
전시회 파리 장식미술관을 시작으로 런던, 상하이 등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크리스찬 다울: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Christian Dior: Designer of Dreams) 전시회가 4월 19일부터 7월 13일까지 서울 을지로동 디자인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글로벌 건축 기업 OMA의 파트너 스페이스 쇼케이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넘치는 공감을 배경으로 75년 이상 창조적인 활기로 가득했던 다울 하우스의 역사적

사를 만나볼 수 있다.

*임장권은 2025년 4월 2일부터 디올 공식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ior.com/ko_kr/fashion/designer-of-dreams

10 위블로 비뱅 유니코, 윈 클릭 민트 그린 세라믹 위블로의 상징적인 비뱅 유니코, 윈 클릭 모델에서 새로운 색상인 민트 그린 세라믹을 출시했다. 시원한 파스텔 색조로 상쾌함을 더하는 푸른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클래식한 룩에 포인트 위치로 착용하기 좋아 여름 스타일링에 생기를 더하기에 제격이다. 문의 02-2118-6208

11 샤넬 뷰티 이드라 뷰티 마이크
로 세럼 샤넬 뷰티가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세럼을 출시했다. 피부
에 수분 공급을 선사하는 카멜리
아-올레오 추출물을 함유한 블
루 캡슐, 영양을 풍부히 공급해
주는 카멜리아 오일을 함유해
새롭게 선보이는 두통 캡슐, 2
가지 마이크로 캡슐로 수분 장
벽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뛰어
난 수분 충전 효과로 최적의 피
부 컨디션을 선사한다. 문의
080-805-963



11



DIOR

ROSE DES VENTS COLLECTION

온라인 부띠끄, [Dior.com](https://www.dior.com)